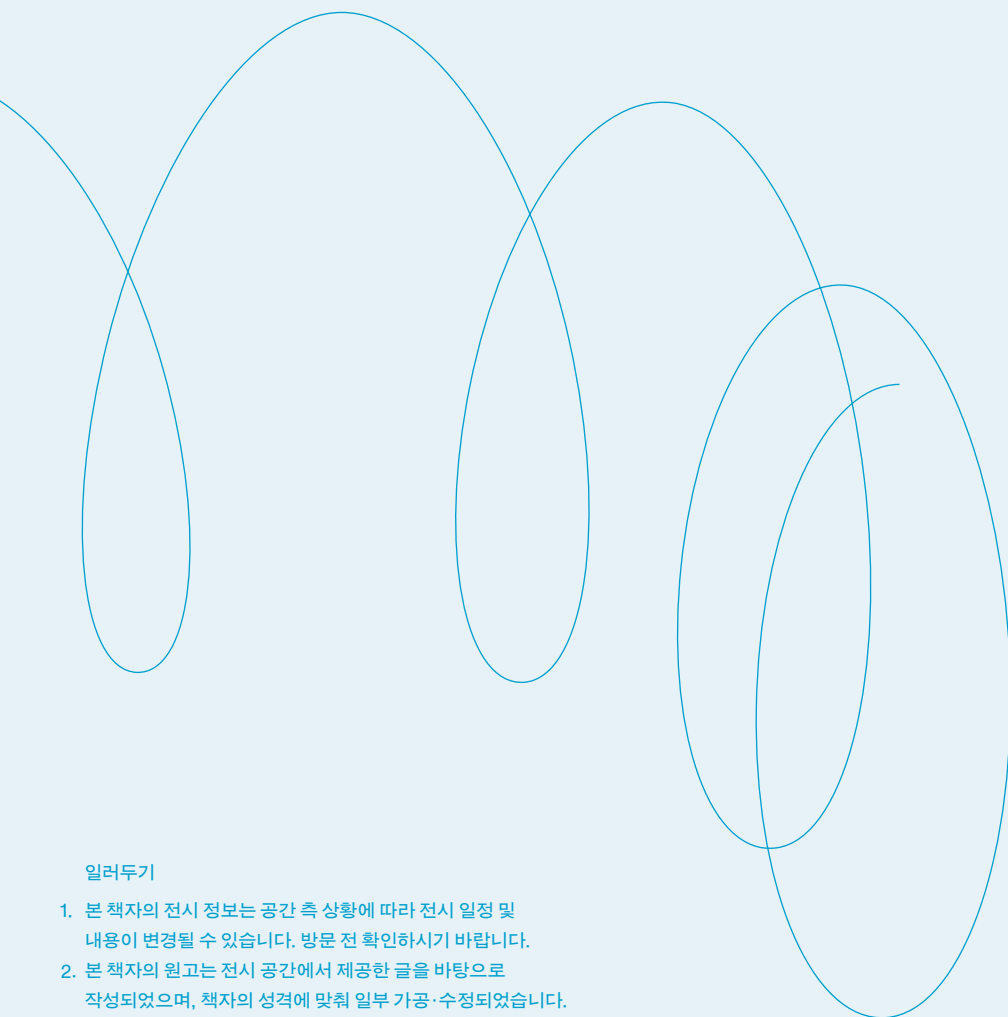


2022 부산 아트맵 프로젝트

물결 더하기



WAVES SYMPHONY



일러두기

1. 본 책자의 전시 정보는 공간 측 상황에 따라 전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책자의 원고는 전시 공간에서 제공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책자의 성격에 맞춰 일부 가공·수정되었습니다.

Notes

1. Exhibition information in this booklet may diff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spaces, so please check before visiting.
2. The manuscript for this booklet was produced from text provided by the spaces, and minor edits and correction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booklet formatting.

목차
Contents

2022 부산 아트맵 프로젝트 2022 Busan Art Map Project	2
--	---

예술의 물결을 더하며 Form the Waves Symphony of Art	4
---	---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6
--------------------------	---

<물결 더하기> 인터뷰 <i>Waves Symphony</i> Interview	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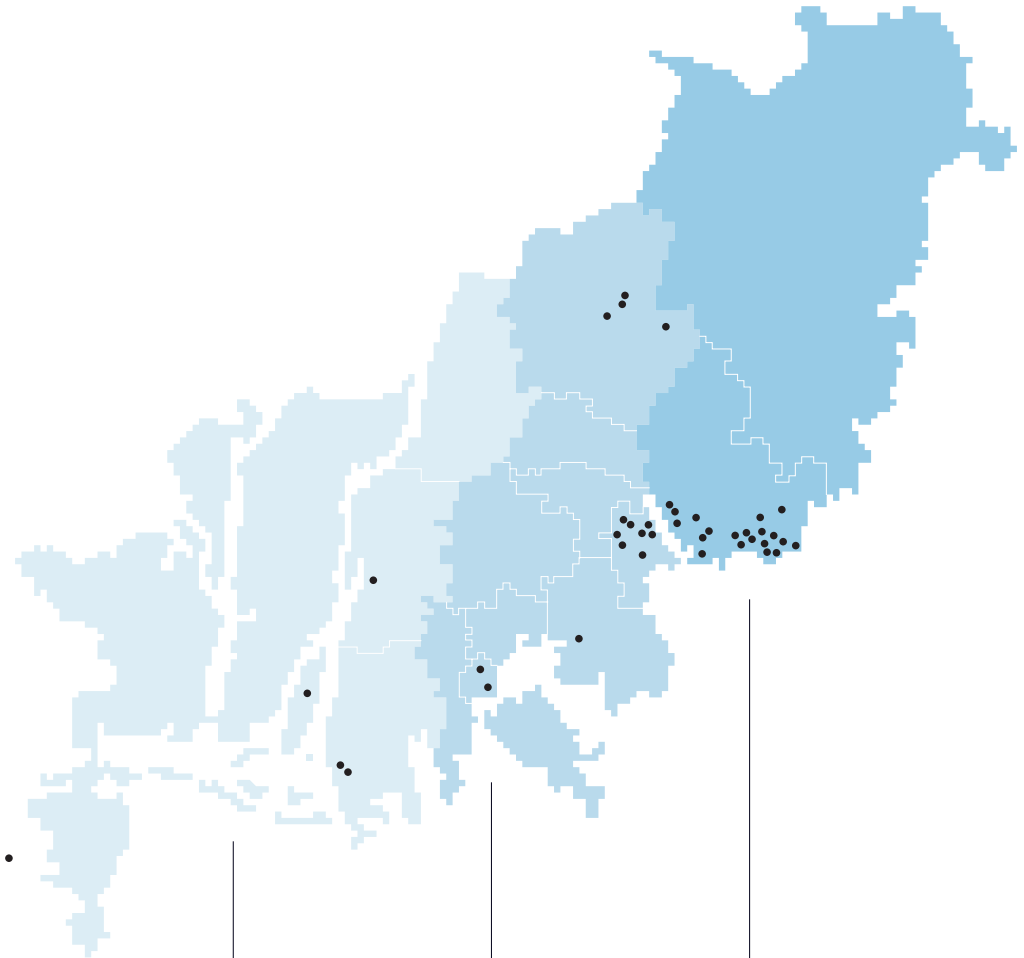
2022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16
-----------------------------------	----

전시장소 Exhibition Venues	18
---------------------------	----

물결 더하기 Waves Symphony	22
--------------------------	----

서부의 물결 Waves in Western Busan	24
중부의 물결 Waves in Central Busan	31
동부의 물결 Waves in Eastern Busan	54

찾아보기 Index	84
---------------	----



서부권

5개의 공간,
6개의 전시

Western Busan

5 spaces,
6 exhibitions

중부권

15개의 공간,
22개의 전시

Central Busan

15 spaces,
22 exhibitions

동부권

20개의 공간,
29개의 전시

Eastern Busan

20 spaces,
29 exhibitions

2022 부산 아트맵 프로젝트 <물결 더하기>

2022 Busan Art Map Project: *Waves Symphony*

부산비엔날레에서는 부산의 대안공간, 공공미술관 그리고 갤러리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과 그들의 전시를 소개하는 2022 부산 아트맵 프로젝트 <물결 더하기>를 선보입니다. 부산시를 크게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세 조각으로 나누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40개의 복합문화공간, 56개의 전시를 한 책자에서 모아보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책자는 비엔날레 전시공간과 소개된 40여 개의 복합문화공간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각 예술 공간별 오픈 시간은 상이하며 2022부산비엔날레 전시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he 2022 Busan Art Map Project: *Waves Symphony* is a brochure directed by the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This guide offers introductions to, an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xhibitions as well as alternative art spaces, art museums, private galleries, and various other cultural spaces to be explored in Busan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 map divides Busan into 3 parts, “Western Busan”, “Central Busan”, and “Eastern Busan”, offering an overview of all available exhibitions. Visitors will be able to pick up the brochure free of charge at each cultural venue including all of the Busan Biennale 2022 exhibition venues. The opening hours of each artistic venue may vary and the maps will also be available to download on the official website during the Busan Biennale 2022.

Download URL:

busanbiennale2022.org/visit

2022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을 주 전시장으로 하여 부산항과 영도의 창고 그리고 초량의 공간에서 전개됩니다. <물결 위 우리> 주제로 도시 부산의 형성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여러 맥락을 예술적 문맥으로 접근하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 지어 살피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지역의 역사와 담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산비엔날레에서 제작하는 '아트맵 프로젝트 <물결 더하기>' 책자는 비엔날레 기간에 진행되는 부산의 여러 미술 전시와 공간을 소개합니다. 이 '가이드 북'을 통해 부산비엔날레를 찾는 관객들이 부산의 다양한 미술 지형을 이해하고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작을 위해 협력해 주신 미술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산비엔날레가 지역의 시각 예술계와 상호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김성연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The Busan Biennale 2022 is presented in spaces throughout the Busan Port area, Yeongdo, and Choryang, with the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s its main exhibition hall. Under the theme of *We, on the Rising Wave*, the biennale approaches a multitude of contexts from which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Busan as a city, from an artistic context, should be noted, and examines and asks questions in connection with the world as we experience it. The significance of this biennale is that it begins in, and links to, the history and discourse of the region.

The Art Map Project *Waves Symphony* brochure produced by the Busan Biennale highlights the various art exhibitions and spaces occurring in Busan during the biennale. It is expected that this “guide book” will help visitors to the Busan Biennale understand and be better able to experience Busan's diverse art landscapes. I would like to thank the art community for their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of this guide book and hope that the Busan Biennale will continue to develop a mutual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visual arts community.

KIM Seong-Youn
Executive Director of
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 «부산청년비엔날레»와 바다를 배경으로 시작된 자연환경미술제 «부산국제바다미술제»(1987) 그리고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1991)이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1998)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 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지역 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험적인 전시는 오늘날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가 하나의 비엔날레로 결합하여 진행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부산비엔날레가 유일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네트워크와 전시, 프로그램,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이래 약 40년간 현대미술의 확산과 일상 속 예술 실현을 목표로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Busan Biennale is a biannual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hat integrated three different art events held in the city in 1998: The Busan Youth Biennale, the first biennale of Korea that was voluntarily organized by local artists in 1981; the Sea Art Festival, an environmental art festival launched in 1987 with the sea serving as a backdrop; and the Busan International Outdoor Sculpture Symposium that was first held in 1991. The biennale was previously called the Pus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PICAF) before it launched.

The biennale has its own unique attribute: it was formed out of the pure force of local Busan artists' will and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Even to this day their interest in Busan's culture and its experimental nature has been the key foundation for shaping its identity. Particularly, this biennale is the only one like it in the world that was established through an integration of three types of art events such as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culpture Symposium, and Sea Art Festival.

The biennale, which has formed through the event an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exhibitions and seminars, has contributed to development with 40 years of history and aims to spread contemporary art and achieve art in everyday life by providing a platform for interchanging experimental contemporary art.

9월 3일을 시작으로 65일간 선보이는 2022부산비엔날레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2022 부산 아트맵 프로젝트 <물결 더하기>에는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짚고자 수년간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3인 이재구(고은사진미술관 관장, 이하 **GE**) 김정훈(오픈스페이스 배 대표, 이하 **BAE**) 윤영숙(오션갤러리 대표, 이하 **OC**)을 한자리에 모았다. 마치 산복도로와 같은 다이내믹한 예술계의 지형을 그려온 이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다양한 성격으로 이뤄진 공간이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점이 흥미롭다. 각 공간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GE. 고은사진미술관은 해운대에 소재한 사진전문미술관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설립됐다. 사진문화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전시 및 출판, 그리고 아카데미와 아카이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신진 사진가 발굴 프로젝트를 지속해온 BMW Photo Space와 대안예술공간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를 통해 장르를 넘나드는 전시를 기획해오고 있다.

BAE. 오픈스페이스 배는 비영리 대안공간으로 부산 지역의 예술가들과 문화 활동가들에 의해 2006년 부산의 일광산 중턱에 세워졌다. 자연과 마주한 이곳에서 예술공간의 실천 가능성과 실험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원도심 중앙동에서 신진작가의 예술계 진입과 지역의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세대교체를 이루어내며, 동시대에서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의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OC.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학 강의와 부곡문화예술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13년, 해운대 청사포에 지금의 오션갤러리를 설립하였고, 아티스트와 관람객의 가교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2020년 경주지점 그리고 2021년에는 LCT에 제2전시관을 오픈하여 현재 총 3개의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Q2.

지금까지 주로 어떤 전시를
했고 또 어떤 작가와
관객을 만나왔나?
향후 2년 안에 기획하고
싶은 전시가 있다면?

GE. 고은사진미술관은 개최 이래 작가들의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여왔다. 먼저 국내외 대표 중진사진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부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재조명된 작가와 작업을 통해 지역사를 기록하는 «부산사진의 재발견»은 이제까지의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실험정신을 갖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기획전과 세계사진사의 맥락 속 한국사진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해외교류전을 통해 이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AE. 오픈스페이스 배는 2006년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해오며,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픈 투 유», 작가 재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도시와 도시의 예술공간을 연결하는 «로컬 투 로컬» 등이 있다.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는 작가의 삶과 예술의 부산물, 부산에서의 생산물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내용을 ‘탐독’이라는 형식으로 작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실험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OC. 오션갤러리는 이영철(회화), 정운식(조각), 김정대(조각) 등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데 충실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하트를 창시한 프랑스 작가 토마스 라마디유와 같은 저명한 해외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세계 각국의 주류 아티스트보다는 지역의 특색이 확실한 아티스트들을 대륙 별로 모아 전시하는 ‘NEW LOCALISM ART’를 선보일 계획이다.

Q3.

이번 2022부산비엔날레와 아트맵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GE. 사진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아마추어리즘을 꼽을 수 있듯, 이는 국경을 초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소통하고 공감 가능한 현대예술의 핵심 장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진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소중한 영상언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은사진미술관은 부산비엔날레와 함께 향후에도 부산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진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BAE. 동시대 미술은 도처에 존재하는 불가능에 대한 질문이라 본다. 낯선 것은 언제나 불편함을 수반하며 우리를 망설이게 하지만, 달리 보자면 이걸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예술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질문하고, 다양한 배경을 들여다보는 새로움으로 향하는 가능성과 같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그 가능성을 얻길 바란다.

OC. 예술의 역할과 그 본질은 인류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것에 있다 생각한다. 물론 현대미술의 특성상 선뜻 다가가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아트맵은 가교 역할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판단된다. 지역 작가들의 참여와 의지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비엔날레답게, 앞으로도 로컬리즘의 선두에서 관객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동시대 미술 행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The Busan Biennale 2022 begins its 65 day journey from September 3rd. The Art Map Project *Waves Symphony* has invited three people who have been working actively in Busan for many years, LEE JaeGu (Director of GoEun Museum of Photography, hereafter **GE**); KIM Jung Hoon (Director of OpenSpace Bae, hereafter **BAE**); YOON Young-Sook (Director of Ocean Gallery, hereafter **OC**), to open discourse on the current state of contemporary art. Here we present their vivid stories of the field drawing from the dynamic terrain of the art world.

Q1.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are venues that boast a variety of interesting characteristics in each different area. What was the background for establishing each space?

GE. GoEun Museum of Photography was established in Haeundae in 2007 as a photography museum aiming to contribute to resolving issues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cultural and art infrastructure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the specialization, and due to the increasing popularization, of photography culture, it has developed into an open cultural and artistic space through exhibitions, publications, an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acting as an academy and archive. The museum has been planning exhibitions that transcend genres through the BMW Photo Space, which has continued the project to discover new photographers, and FRANCE Art Space as an alternative art venue.

BAE. Openspace Bae, a non-profit alternative space, was built in 2006 at the foot of Mt. Ilgwang in Busan by local artists and cultural activists. This place, facing onto nature, was created to examine the practical possibilities and experimental potential of an art space, and many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planned in the old downtown area, Jungang-dong, with the aim of entering the art world of up-and-coming artists and revitalizing the local art ecosystem. Recently, a generational change has been taking place, and the practice of a new alternative space is being sought.

OC. After returning from my studies abroad in Paris, France in 2004, I started to build a connection with Busan

while lecturing at a university and working as director of the Bugok Culture and Arts Center. Afterwards, I established the current Ocean Gallery in Cheongsapo in Haeundae in 2013. The second exhibition hall was opened in Gyeongju in 2020 and the third one at LCT in 2021 to expand the bridge between artists and visitors: I am currently operating a total of three galleries.

Q2.

What kind of exhibitions have you held so far, and what artists or visitors have you met? Is there an exhibition you would like to plan in the next two years?

GE. GoEun Museum of Photography has presented various special exhibitions that continue artists' works since opening. Starting with the *Busan Project*, which supports the solo exhibitions of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photographers, and the *Rediscovery of Busan Photographs* exhibitions, which record local history through the re-examination of artists and works, there is a systematic plan of support focusing on an examination of the work so far, as well as seeking future direction. Moreover, efforts have been made to solidify these foundations by planning special exhibitions to discover emerging artists with an experimental spirit, and overseas exchange exhibitions to examine and reflect on the position of Korean photography in the context of world photography.

BAE. Openspace Bae has been presenting exhibitions with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for 17 years, starting from 2006, and develops different program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residence program *Open To You*, the artist re-education program *Artist Incubating Program*, and *Local to Local* which connects the city and the urban art space. During this biennale period, an exhibition will be presented to experiment with a new direction of artistic research in the form of “exploring” the two meanings of the “artist’s life and art by-products” as well as “the products in Busan”.

OC. Ocean Gallery not only faithfully introduces the flow of contemporary art by presenting exhibitions of artists representing Korea such as LEE Young-Cheol (painting), JUNG Unsik (sculpture), and KIM Jeongdae (sculpture), we also concentrate on helping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by holding exhibitions of prominent foreign artists such as Thomas LAMADIEU, the French artist who founded the SkyArt series. We plan in the future to introduce *NEW LOCALISM ART*, which collects

and exhibits works from artists with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by continent rather than mainstream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Q3.
What do you want to communicate to visitors through the Busan Biennale 2022 and the Art Map Project?

GE. As amateurism can be taken a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y, photography is a core genre of contemporary art that transcends borders and can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In that it also has a record value: Photography can be said to be a precious visual language and resource directly integrated with living happily. In this regard, GoEun Museum of Photography, together with the Busan Biennale, plans to spare no effort so that local residents in Busan can enjoy the art of photography in their daily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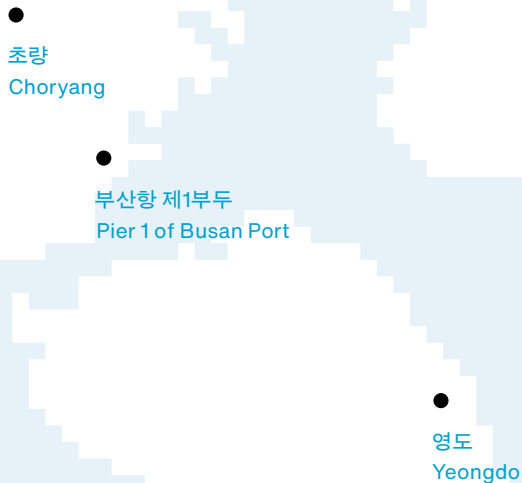
BAE. Contemporary art is viewed as a question about the ubiquitous impossibility. Unfamiliarity is always seen to entail discomfort and hesitation, bu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also suggests other possibiliti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sking questions about our lives through the language of art and looking into a variety of differing backgrounds, we hope that this biennale will bring forth those possibilities.

OC. It is believed that the role of art and its essence lies in bringing happiness and emotion to mankind. Of course, due to the nature of contemporary art, it may be difficult to approach this readily,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it nonetheless. In this respect, the Art Map Project of this Busan Biennale is judged to be a meaningful attempt to serve as a bridge to this understanding. As the first biennale in Korea started with the participation and will of local artists, we encourage its growth into a contemporary art event that leads the audience well while remaining at the forefront of localism.



2022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
부산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2022부산비엔날레는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65일간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원도심을 비롯해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와 초량의 구옥 등 총 4개의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The Busan Biennale 2022 will be presented in a total of four spaces from September 3 to November 6 over a period of 65 days, including exhibitions in the old town, which well represent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Busan,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Pier 1 of Busan Port, and in Yeongdo, as well as in a traditional house in Choryang.

2022부산비엔날레 «물결 위 우리»는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와 도시 구조의 변천 속에 새겨진, 또 감추어진 이야기를 돌아보고, 이를 전 지구적 현실과 연결 지어 바라봅니다. ‘물결’은 오랜 세월 부산으로 유입되고 밀려났던 사람들, 유동치는 역사에 대한 표현이자, 세계와의 상호 연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기술 환경에서 전파에 대한 은유이면서 해안 언덕으로 이뤄진 굴곡진 부산의 지형을 함축합니다. ‘물결 위 우리’는 이러한 지형과 역사 위에서 각 개인의 몸이 그 환경과 긴밀히 엮여 있음을 드러내며, 유동하는 땅을 딛고 미래를 조망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주, 노동과 여성, 도시 생태계, 기술 변화와 공간성을 중심으로 삼아 부산의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참조하고 이에 연결되는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부산의 뒷골목 이야기가 세계의 대도시와 연결되고 교차하고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각기 다른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제안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단단하게 물결을 딛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제:
물결 위 우리

기간:
2022년 9월 3일 ~ 11월 6일
(65일간)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
초량

전시감독:
김해주(한국)

규모:
25개국 64작가/팀(80명)



Busan Biennale 2022 *We, on the Rising Wave* takes Busan as a starting point in reflecting on the stories that remain or lie hidden within the history of Busan since the modern era and the changes in the city's structure and examining them in relation to the reality in the world. The "rising wave" signifies the history and transformations of Busan, and the people pushed out of it and flowing into it, while also signify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Additionally, it is a metaphor for dissemination in an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change, as well as a description of Busan's rolling landscape of seaside hills. *We, on the Rising Wave* refers to the ways in which the individual bodies situated in this terrain and history are closely tied to their environment, and to the situation of standing atop this endlessly shifting topography as we survey the future.

Through a structure of observing small-scale urban narratives and juxtaposing and repeating their connections to the larger world, the exhibition attempts to achie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As it reflects the conflicts and issues found within this context, it asks the ultimate question: How can all these different actors live together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Focusing on "migration," "labor and women," "the ecosystem of the city," and "technological change and placeness" as major keywords, the exhibition examines concrete events and situations in Busan that relate to them, as well as stories from other regions and countries that relate to them.

Theme:*We, on the Rising Wave***Period:**Sep. 3 to Nov. 6, 2022
(65 days)**Venues:**MOCA Busan
Pier 1 of Busan Port
Yeongdo
Choryang**Artistic Director:**

KIM Haeju(Korea)

Scope:64 artists/teams(80 people)
from 25 countries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낙동강 하구 을숙도는 1966년, 생물·지질 및 해양 환경이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될 정도로 다양한 생물종의 삶의 터전이자 70년대까지 아시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왔으나 이후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심지어는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부산시는 을숙도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 하며 이곳에 부산현대미술관을 개관하였고, 환경 보존과 함께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나누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성과 변모의 과정, 자연과 생태 환경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을숙도는 이번 전시 주제와 맞닿아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which will be used as the main exhibition venue, is located on Eulsukdo at the mouth of the Nakdong River. Eulsukdo was well known for its abundance of migratory birds and rich biodiversity in the past, but the natural environment was greatly damaged during urban industrialization. As the ecosystem changed, the urban environment also underwent major changes. At this exhibition, the wave of changes in urban ecosystems is highlighted and showcased as a global phenomenon.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191
1191, Nakdongnam-ro,
Saha-gu, Busan



부산항 제1부두 Pier 1 of Busan Port

부산항 제1부두는 전쟁과 식민 통치 등 한국 근현대사적 의미에서 그리고 근대화 산업의 발원지로서도 경제 성장과 노동, 이주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입니다. 식민지 시기의 수송로이자 이후 무역 및 여객 부두로서 개발되어온 부산항 제1부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피란 수도 부산'을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원형을 보존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문화 시설로 첫 선을 보이는 제1부두의 창고는 1970년대 건축물로 그 면적은 4,093m²에 달합니다. 최근까지 민간 출입이 통제되었던 만큼 2022부산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ier 1 of Busan Port reflects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hich experienced changes from war and colonial rule. It is a place filled with stories of labor and the migration of refugees and a place that has seen economic growth. By connecting common contexts like that of many port cities, the warehouse (4,093m²) located at Pier 1 will be used as the main exhibition space together with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부산 중구 충장대로 26
26, Chungjang-daero,
Jung-gu, Busan



영도

Yeongdo

부산항 인근에 위치한 영도는 1930년대부터 조선공업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끈 주요 도심지이자, 한국전쟁 피난민과 실항민의 터전으로 많은 애환을 담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조선소가 지어진 이래 강강이 아지매들의 선박 노동과 제주도에서 이주해 온 영도 해녀들의 삶 그 자체로 '이주'와 '노동'의 단편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조선업 쇠퇴 이후, 현재는 그 흔적만 남겨진 중공업 폐공장 건물이 이번 2022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Yeongdo has been the center of the modern shipbuilding industry since the 1930s and is an important downtown area that has driven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Due to th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since the 2000s, the abandoned factory site in Yeongdo, where only traces of it remain, will become an important exhibition site for this year's Busan Biennale.

부산 영도구 해양로 207
207, Haeyang-ro,
Yeongdo-gu, Busan



초량 Choryang

초량 산복도로에 자리할 마지막 전시장소로는 부산의 근간을 지탱해온 사람들의 삶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구옥’을 선택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굽이진 산복도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전시장으로 향하며 거주민들의 애환과 그로 인한 공동체 의식을 느껴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부산의 도시 풍경 곳곳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The exhibition site on Choryang symbolizes the “house” where the lives of workers who have supported the foundation of modern industry are best incorporated. While heading to the exhibition venue perched on the hill, visitors will be enlightened on their perception of where people live as they walk up the winding road and witness how the urban landscape has changed over the years.

부산 동구 망양로
533번길 20-5
20-5, Mangyang-ro
533beon-gil,
Dong-gu, Busan



물결 더하기

Waves Symphony



서부의 물결
Waves in
Western Busan

25

26

28

29

30



선진호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

홍티아트센터

홍티예술촌

Sunjin Ho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Eulsukdo Cultural Center Gallery Eulsukdo

Hongti Art Center

Hongti Art Village



서부의 물결

Waves in Western Busan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역사를 실어 나르는 그릇

Steel Ark Drifting Agora:
The Vessel that Carries History

10.1 ~ 11.20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414-13

055-635-2299

화-일 10:00-18:00

사전 예약 필수

무료

414-13, Yeon-gu-ri,
Hacheong-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82-55-635-2299

Tue-Sun 10:00-18:00

Advanced reservation only

Free

www.geojumdo.com

@geojumdo

해양산업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예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문화적 자산으로 유형화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된 선진호(첨단 SWATH 선형 바다 위의 연구소)의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해양산업의 현재를 시각화하여 아카이브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소리, 공기, 기온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석한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In the era of maritime industry transformation, this exhibition presented by Sunjin Ho(Research Laboratory on the Sea with Advanced SWATH Vessel) attempts to find out what art should do and can do, along with how to categorize art into cultural assets. In addition, it introduces works of art that interpret phenomena occurring inside industrial sites with three keywords, sound, air, and temperature, from a human-centered perspective.



거제로컬디자인 섬도
Geoje Local Design Sumdo,
<해양산업 아카이브_리서치 트립_울산
Marine Industry Archive_
Research Trip_Ulsan>, 2022,
digital print, 297x420cm.

선진호

Sunjin Ho

2022 예문교직원사진전

2022 Yemoon Exhibition of Photographs
for School Personnel

9.2 ~ 9.24

부산 북구 낙동북로 737-1
051-366-8114
화-토 9:00-17:00
무료

737-1, Nakdongbuk-ro,
Buk-gu, Busan
+82-51-366-8114
Tue-Sat 9:00-17:00
Free

www.bacs.go.kr

교직원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시로
문화예술 창작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This is an exhibition to cultivate the artistic sensibility of
school personnel and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It intends to provide a venue for present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creation.



«2021 예문교직원사진전» 전시 전경,
학생예술문화회관, 2021.
Exhibition View of 2021 Yemoon
Exhibition of Photographs for
School Personnel,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2021.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일상, 그리다

Painting of Daily Life

10.6 ~ 10.26

부산 북구 낙동북로 737-1
051-366-8114
화-토 9:00-17:00
무료

737-1, Nakdongbuk-ro,
Buk-gu, Busan
+82-51-366-8114
Tue-Sat 9:00-17:00
Free

www.bacs.go.kr

예문HADA프로젝트 Part3. 전시로 매일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에서 김자옥, 박다현, 박한지, 오준영, 우덕하 다섯 작가들이 느낀 감정과 희망, 관계, 여유 등을 각자의 시선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With the exhibition of Yemoon HADA Project Part 3, we would like to portray the scenery we see every day, the objects around us, the people we encounter, and the emotions, hopes, relationships and relaxation felt by the five artists, KIM Jaok, PARK Dahyeon, PARK Hanji, OH Joonyoung, WOO Deokha, in their ordinary daily life.



참여작가 대표작품(시계방향으로):
김자옥, 박다현, 박한지, 우덕하, 오준영.
The representative work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clockwise:
KIM Jaok, PARK Dahyeon,
PARK Hanji, WOO Deokha and
OH Joonyoung.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백주아 · 손유하 · 박지원 개인전

BAEK Jua · SOHN Yuha · PARK Jiwon

Solo Exhibitions

10.7 ~ 10.30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25

051-220-5822

화-일 10:00-18:00

무료

25, Nakdongnam-ro

1233beon-gil,

Saha-gu, Busan

+82-51-220-5822

Tue-Sun 10:00-18:00

Free

www.saha.go.kr/eulsukdo

부산을 사랑하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채로운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부산지역 미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미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는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주아·손유하(10.7~10.16), 박지원(10.21~10.30) 개인전을 선보인다.

By discovering young and competent artists who love Busan, Eulsukdo Cultural Center Gallery Eulsukdo supports creative activities for artists and holds a variety of exhibitions that guarantee local residents' right to enjoy culture. The gallery striv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art by expanding its base in Busan. During the Biennale period, solo exhibitions of BAEK Jua, SOHN Yuha, and PARK Jiwon are presented as part of "Eulsukdo Loves Busan Young Artists Project".



갤러리 을숙도 전시공간
Gallery Eulsukdo Exhibition Hall.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

Eulsukdo Cultural Center
Gallery Eulsukdo

끝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End

4.13 ~ 11.25

부산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6
051-746-0055
월-토 10:00-17:30
무료

6, Dasan-ro 106beon-gil,
Saha-gu, Busan
+82-51-746-0055
Mon-Sat 10:00-17:30
Free

www.bscf.or.kr
[@hongtiartcenter](https://www.instagram.com/hongtiartcenter)

누군가는 ‘끝’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작’이라는 출발선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무엇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당신의 끝의 시작은 어떠한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오늘의 상황 속에 홍티아트센터는 10기 입주작가들을 맞이하였다.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10기 작가들이 들려주는 끝과 시작의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Everyone “begins” or “ends” something in their own language at some point. What is the beginning of your end? In today’s never-ending situation, Hongti Art Center welcomes 10 resident artist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end and the beginning, this exhibition seeks the story of the end and the beginning, which the 10 artists will highlight.



«끝의 시작» 전시 포스터,
홍티아트센터, 2022.
Exhibition poster of
the Beginning of the End,
Hongti Art Center, 2022.

홍티아트센터
Hongti Art Center

2022 홍티예술촌 전시공간 지원사업

2022 Hongti Art Village Exhibition Space Support Project

8.4 ~ 9.26

부산 사하구 홍티로 76
051-220-4919
화-토 10:00-18:00
무료

76, Hongti-ro,
Saha-gu, Busan
+82-51-220-4919
Tue-Sat 10:00-18:00
Free

blog.naver.com/culturebug27

2022 홍티예술촌 전시공간 지원사업에 따라 선보이는 홍티예술촌의 입주작가 전시로 김도플의 «almost a love story»와 황정원 개인전 «비이상의 숲», 청년작가발굴 기획전으로 김용의 «문=벽=10», 우정이가 개인전 «The shadow of Publizen»이 준비되어 있다.

Shown according to the 2022 Hongti Art Village Exhibition Space Support Project, *Almost a Love Story* by KIM Doppul, and Hwang Jungwon's solo exhibition *Not Ideal Forest* are exhibitions by resident artists at the Hongti Art Village; *Door=Wall=10* by KIM Yong and *The Shadow of Publizen* by UJUNG are also held as part of the Young Artists Project exhibition.



김용 KIM Yong,
«숫자10 Number 10»,
2022, mixed material,
variable size.

홍티예술촌
Hongti Art Village

예술공간 영주맨션
오픈스페이스 배
디오티미술관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예술지구_p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갤러리아배
국제갤러리
공간 힘
오브제후드
워킹하우스뉴욕
전시공간 보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현대미술회관

Art Space Youngju Mansion
Openspace Bae
DOT Museum
PNU Art Center
Art District_p
openARTs space MERGE?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Lee & Bae
Kukje Gallery
Space Heem
Objecthood
Walking House New York
BODA-Beonwho
Hyundai Motorstudio Busan
COCA Busan



중부의 물결
Waves in
Central Busan

2022 여성예술인을 위한 기술워크숍 연계전시

Exhibition Linked to Technology
Workshops for Female Artists 2022

9.18 ~ 10.16

부산 중구 영초길 51
9-다동 지하 5호
수-일 10:00-18:00
무료

#5, B1, 9-Da-dong 51,
Yeongcho-gil,
Jung-gu, Busan
Wed-Sun 10:00-18:00
Free

@youngjumansion

공구나 기술은 암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 예술인은 작업 과정 및 전시 준비 상황 가운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도구와 기술 활용에 있어 여성 예술인의 장벽을 허물고자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기술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In an atmosphere where tools and techniques are implicitly considered the domain of men, female artists often encounte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work and in preparing for exhibitions. Accordingly, three technical workshops were held in 2022 to break down barriers for female artists in using tools and technology. This exhibition shows the results and experiences of this process.



«2022 여성예술인을 위한 기술워크숍 연계전시» 워크숍 참여자 단체 사진
Group photo of workshop Exhibition
Linked to Technology Workshops
for Female Artists 2022.

예술공간 영주맨션
Art Space
Youngju Mansion

부산물

Busanmul

9.3 ~ 11.5

부산 중구 동광길 43
051-724-5201
월-토 11:00-18:00
무료

43, Donggwang-gil,
Jung-gu, Busan
+82-51-724-5201
Mon-Sat 11:00-18:00
Free

www.spacebae.com

리혁중 개인전 «부산물»은 '작가의 삶과 예술의 부산물', '부산에서의 생산물'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내용을 탐독하는 전시로 작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실험하는 전시이다. 부산비엔날레, 미술주간, 영도문화도시의 이슈를 연계하여 생활-예술-문화-기획을 잇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전시를 선보인다.

LEE Hyeokjong's solo exhibition *Busanmul* aims to explore the two meanings of the "artist's life and art by-products" as well as "the products in Busan", with an emphasis on experimenting with a new direction of artistic research. Openspace Bae presents a complex and three-dimensional exhibition that connects life, art and cultural planning by linking the issues of the Busan Biennale, Art Week and Yeongdo Cultural City.



리혁중 LEE Hyeokjong,
〈이카루스의 비행_이카루스 프로젝트
개념도 Icarus Flight_Icarus Project
Conceptual Map〉, 2019,
acrylic paint on the waste door
collected at the reconstruction site,
83x204x3cm.

오픈스페이스 배
Openspace Bae

톡톡, 탁탁

TOKTOK, TAKTAK

9.1 ~ 10.1

부산 금정구 금샘로 35
051-518-8480
화-토 11:00-18:00
5,000원

35, Geumsaem-ro,
Geumjeong-gu, Busan
+82-51-518-8480
Tue-Sat 11:00-18:00
5,000 KRW

dotmuseum.co.kr

디오티미술관은 김성수, 김원근, 이상현, 이원숙 4인의 <<톡톡, 탁탁>>전을 개최한다. 나무 작업 시 나는 소리 “톡톡, 탁탁”은 개성 있는 작가들의 같으면서도 다른 예술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시를 통해 나무의 친근함과 예술작품의 다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he DOT Museum holds *TOKTOK, TAKTAK* which involves four artists: KIM Sungsoo, KIM Wongeun, LEE Sangheon, and LEE Wonsuk. The sound “*TOKTOK, TAKTAK*” made by working on wooden material, indicates those four characteristic artists’ similar but distinctive artistic senses. In this exhibition, we can feel the familiarity of wood, and see the variety of artistic works at the same time.



김성수 KIM Sungsoo,
<새를 타는 사람들 *Bird Riders*>,
2021, colored on wood,
500x1,000x350cm.

디오티미술관
DOT Museum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40주년 기념전 외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40th Anniversary Exhibition & Other Exhibitions

9.16 ~ 10.20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효원문화회관 8층
051-510-7323
월-일 10:30-18:00
무료

8F, Hyowon Cultural Center,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82-51-510-7323
Mon-Sun 10:30-18:00
Free

artscenter.pusan.ac.kr

2009년에 설립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내 전시 업무의 전문화와 독립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국내외 현대미술작품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함께 미술작품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학내 대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40주년 기념전(9.30~10.13)을 비롯해 김민서(9.16~9.22), 송천기(9.23~9.29), 오유민(10.14~10.20)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Pusan National University(PNU) Art Center, established in 2009, pursues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in this exhibition by the Department of Art in the university. The center collects, preserves, and exhibits various materials on contemporary art at home and abroad. It also conducts research on artworks and rents out the exhibition hall to students and staff. During the Biennale period, three exhibitions by KIM Min Seo(9.16~9.22), SONG Tianqi(9.23~9.29), OH You Min(10.14~10.20)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40th Anniversary Exhibition(9.30~10.13).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전시실 전경
View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 Center Exhibition Hall.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PNU Art Center

바디 시리즈

Body Series

9.7 ~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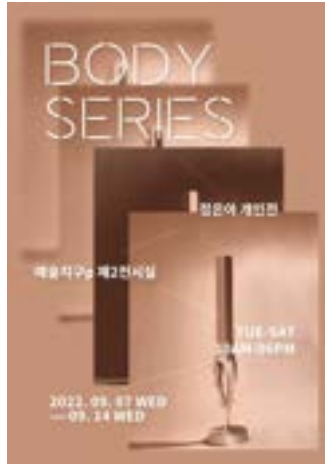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
070-4322-3113
월-토 10:00-18:00
무료

162, Gaejwa-ro,
Geumjeong-gu, Busan
+82-70-4322-3113
Mon-Sat 10:00-18:00
Free

artdp.org

인체에 관한 작업에 집중해온 정은아 작가는 이번 «바디 시리즈»를 통해 기하학적 도형과 인체를 결합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각 이외에 드로잉 작업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JUNG Eun A, who has been concentrating on works on the human body, begins the story, here, by combining geometric figures and the human body through the *Body Series*. In addition to sculptures, drawing works will also be presented.



«바디 시리즈» 전시 포스터,
예술지구_p 2관, 2022.
Exhibition poster of *Body Series*,
Art District_p Hall 2, 2022.

예술지구_p
Art District_p

ㅈㅅ

Sorry

10.6 ~ 10.20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
070-4322-3113
월-토 10:00-18:00
무료

162, Gaejwa-ro,
Geumjeong-gu, Busan
+82-70-4322-3113
Mon-Sat 10:00-18:00
Free

artdp.org

강덕현 작가는 개인전 «ㅈㅅ»에서 자신의 욕망을 되돌아 본다. 욕망의 바다 혹은 현대판 경전이라 불리는 가십잡지의 조각들로 덕지덕지 직조한 작업은 작가의 은밀한 욕망을 드러내며, 물질적 빈곤이 두려워 끊임없이 물질을 갈구하는 본인에 대한 풍자이자 고해이다.

Through this exhibition, KANG reflects on his desires. KANG exposes his secret desires by attaching pieces of magazines such as the sea of desire or modern scriptures. The artist says that he is afraid of material poverty and constantly craves material things, satirizing and confessing on this in his works.



강덕현 KANG Duck-hyun,
〈고해스택 Confession Stack〉, 2022,
paper collage on plywood,
122x122cm.

예술지구_p
Art District_p

박자현 개인전

PARK Jahyun Solo Exhibition

11.1 ~ 11.14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
070-4322-3113
월-토 10:00-18:00
무료

162, Gaejwa-ro,
Geumjeong-gu, Busan
+82-70-4322-3113
Mon-Sat 10:00-18:00
Free

artdp.org

예약제 Reservation only:
3577-pjh@hanmail.net

부산에서 일하고 작업하는 박자현은 이번 개인전에서 금사동 공단에 일을 다니며 출근길에 공단을 기록한 사진과, 노동과 미술작업 사이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풀어 놓는다.

In this solo exhibition, PARK Jahyun, who works and creates artwork in Busan, unleashes photos of the industrial complex as seen on the way to their work in Geumsa-dong, and the thoughts that emerged, as a result, between labor and art work.



박자현 PARK Jahyun,
<금사동 Geumsa-dong>,
2020, digital print.

예술지구_p
Art District_p

2022 오픈아츠 국제 레지던스
한국-아이슬란드 교류 프로젝트 전

2022 openARTs International Residence
Korea-Iceland Exchange Project Exhibition

8. 26 ~ 9. 11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50번길 49,1층
화-일 11:00-19:00
무료

1F, 49, Busandaehak-ro
50beon-gil,
Geumjeong-gu, Busan
Tue-Sun 11:00-19:00
Free

2022 한국-아이슬란드 국제openARTs프로젝트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부산국제openARTs 프로젝트의 진행 및 레지던스에 참여해온 예술가들로 이번 아이슬란드 교류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아이슬란드 레지던스에 참여한 작가 성백, 지오, 임태웅, 배시아의 협력 작업으로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다.

This is an exhibition for a project team formed for the practical progress of the 2022 Korea-Iceland International openARTs Project. Ar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Busan International openARTs Project and residency have formed this Icelandic exchange project. This exhibition sets the stage for the presentation with the collaboration of writers Sung Baeg, Gio, IM Tae-woong, and Baesia who participated in the Iceland Residence.



«2022 오픈아츠 국제 레지던스 한국-아이슬란드 교류 프로젝트 전» 전시 포스터,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2022.
Exhibition poster of the 2022 openARTs International Residence Korea-Iceland Exchange Project Exhibition, openARTs space MERGE?, 2022.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openARTs space MERGE?

10.8 ~ 10.22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번길 49, 1층
화-일 11:00-19:00
무료

49, Busandaehak-ro
50beon-gil,
Geumjeong-gu, Busan
Tue-Sun 11:00-19:00
Free

2022년 현재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전쟁, 폭력 등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다루고자 한다.

As of 2022, the exhibition attempts to create an opportunity to look at and contemplate the problems and various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war and violence,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in the glob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artists. Through this, it aim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artists and deal with the problems of not only our society but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2022 부산국제openARTs 프로젝트» 전시 포스터,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2022. Exhibition poster of the 2022 International openARTs Residence in Busan, openARTs space MERGE?, 2022.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openARTs space MERGE?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Henri Matisse: Life and Joy

7.9 ~ 10.30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051-607-6000
화-일 10:00-19:00
성인 18,000원
청소년 15,000원
어린이 12,000원
만65세 이상 9,000원

1, UN pyeonghwa-ro
76beon-gil, Nam-gu, Busan
+82-51-607-6000
Tue-Sun 10:00-19:00
Adult 18,000 KRW
Youth, 14-19 15,000 KRW
Child, 3-13 12,000 KRW
65+ 9,000 KRW

@bscc_academy

위대한 개척자 앙리 마티스의 삶과 예술을 아우르는 전시는 200여 점의 판화, 드로잉, 아트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며 마티스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열린 마티스의 전시 중 최대 규모로, 마티스의 대표작 <재즈> 원본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왜 마티스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This retrospective exhibition encompasses the life and art of the great pioneer Henri Matisse. The exhibition comprehensively shows about 200 original prints, drawings, and art books, highlighting Matisse's vast world of works. The exhibition is the largest of Matisse's exhibitions ever held in Korea and answers the question of "why Matisse is the greatest" by presenting the original version of Matisse's representative work *Jazz* for the first time in Korea.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전시 포스터,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2.
Exhibition poster of *Henri Matisse: Life and Joy*,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2022.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예술의 품격

The Dignity of Art

9.1 ~ 10.23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27
051-756-2111
화-일 10:30-18:30
무료

127, Jwasuyeong-ro,
Suyeong-gu, Busan
+82-51-756-2111
Tue-Sun 10:30-18:30
Free

www.galleryleebae.com
[@galleryleebae](https://www.instagram.com/galleryleebae)

흑백의 단색과 무수한 선으로서 화면을 구성하는 배상순이 <<예술의 품격>>에서 선보이는 벨벳회화는 시간의 축적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파장과 깊이를 표현하며,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관람자로 하여금 인간 내면의 성찰을 유도한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로 얼룩진 박효진의 조각 역시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공허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삶의 방향성에 대해 우아하게 설득한다.

The velvet painting presented in BAE Sangsun's *Dignity of Art* constitutes a canvas in monochrome with countless lines to express the wavelengths and depths of human relationships within the accumulation of time, and induces not only the artist herself but also the viewer to reflect on their inner human self. PARK Hyojin's sculptures, stained with intense colors, also play a role as a very dignified medium to persuade gracefully about the direction of life while paradoxically expressing human desires and emptiness.



박효진 PARK Hyojin,
Grace Spring, 2020,
mixed media, 65x60x72cm.

갤러리아배
Lee & Bae

의사 擬似 - 합법

Quasi-Legit

8.30 ~ 10.2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051-758-2239

화-일 10:00-18:00

무료

20, Gurak-ro 123beon-gil,

Suyeong-gu, Busan

+82-51-758-2239

Tue-Sun 10:00-18:00

Free

www.kukjegallery.com

@kukjegallery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양혜규 작가의 «의사擬似-합법»을 선보인다.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 솔 르윗의 작품을 블라인드로 재해석한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을 중심으로 꾸린 본 프레젠테이션은 <래커 회화> 및 <소리 나는 조각> 연작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시중 판매되는 유사 색상 페인트로 이브 클라인의 상징적 요소인 '인터네셔널 클라인 블루'를 대체하며 의도적으로 규범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구하는 행위를 더한다.

Kukje Gallery Busan presents *Quasi-Legit* by Haegue YANG. Organized mainly around the *Sol LeWitt Upside Down* series that interprets the work of Sol LeWitt through the use of Venetian blinds, the exhibition also introduces YANG's other representative series, *Lacquer Paintings* and *Sonic Sculptures*. Here, YANG consciously breaks free of western norms and toys with the path of the fake, or the illegitimate, by replacing "International Klein Blue," an iconic element of artist Yves Klein with an off the shelf blue paint that is only similar to the artist's patented hue for the gallery walls.



양혜규 Haegue YANG,
<솔 르윗 뒤집어 걸기 - 29배로 축소된,
복제된 모듈 입방체 Sol LeWitt Upside
Down onto Wall - Double Modular
Cube, Scaled Down 29 Times>, 2017,
aluminum hanging structure, steel
wire rope, LED tubes, cable, 155x204
x104cm. Private collection, Taipei.
Installation view of *Minimalism -
Light. Space. Object*, National
Gallery Singapore, Singapore, 2018.
Image courtesy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국제갤러리
Kukje Gallery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혁명 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It's Such a Complete Mess that
a Revolution Seems to Be the Only Answer.

8.19 ~ 9.18

부산 수영구 수미로
50번가길 3, 지하 및 2층
화-일 11:30-19:30
무료

B1 & 2F, 3, Sumi-ro
50beonga-gil,
Suyeong-gu, Busan
Tue-Sun 11:30-19:30
Free

@spaceheem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혁명 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오늘날 일상에 만연해 있는 자기-파괴 현상이, 나날이
심화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짚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김민, 조희수, 차재민, 최보련 네 명의
작가가 여러 매체로 참여한다. (기획: 진세영)

It's Such a Complete Mess that a Revolution Seems to Be the Only Answer. is an exhibition that recognizes the “autoimmunity-landscape” that is prevalent in every life today and visually points it out. Four artists, KIM Min, CHO Heesoo, CHA Jeamin, and CHOI Boryeon will participate with works in various types of media. (Curated by JIN Seyoung)



1 김민 KIM Min,
〈카운터리듬 시리즈 - 용역과 셀카
CounterRhythm Series - Selfie
with Yongyeok(Hired Goons)〉, 2015,
photography,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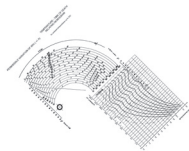


2 조희수 CHO Heesoo,
〈The Divers〉, 2021, performance,
single channel video, color/sound,
9 mins, variable size.



3 차재민 CHA Jeamin,
〈사운드 가든 Sound Garden〉, 2019,
FHD video, color/sound, 30 mins,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4 최보련 CHOI Boryeon,
〈점반적인 하강 국면에서 발견되는
착란적 정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berrated Peak Found
in the Overall Descending Phase〉,
2021~2022, AM transmitter &
wireless receiver, variable size.



공간 힘

Space Heem

밤이 없는 방

A Room without Night

9.30 ~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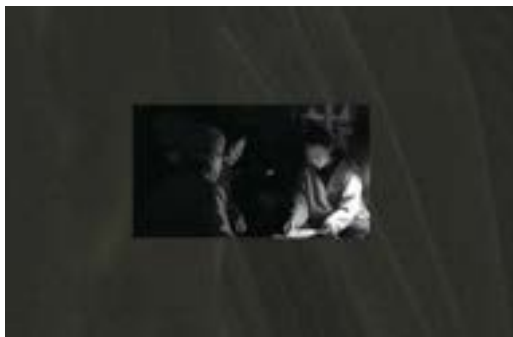
부산 수영구 수미로
50번가길 3, 지하 및 2층
화-일 11:30-19:30
무료

B1 & 2F, 3, Sumi-ro
50beonga-gil,
Suyeong-gu, Busan
Tue-Sun 11:30-19:30
Free

@spaceheem

권하형, 김혜연의 «밤이 없는 방»은 사적 공간인 ‘방’에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얽혀 있는지 살펴본다. 비슷한 또래이자 여성인 두 명의 참여작가는 각자의 방에 유사한 형태의 관성이 작동하고 그것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각한다. 각자 방에 얽힌 관계 문제에 대해서 시각 매체를 통해 이야기 해본다. (기획: 이다솔)

A Room without Night by KWON Hahyung and KIM Hyeeyeon looks into the “room” as a private space and examines how the aspects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are connected. Female participants of the same age group sense a similar form of inertia in their rooms, and realizing the effects of this, discuss problems via the visual media they have selected. (Curated by LEE Dasol)



김혜연 KIM Hyeeyeon,
«술만 쉬는 방 *Room for Breathing, Only*», 2020,
single channel video, 4 mins.

공간 힘

Space Heem

11.4 ~ 11.20

부산 수영구 수미로
50번가길 3, 지하 및 2층
화-일 11:30-19:30
무료

B1 & 2F, 3, Sumi-ro
50beonga-gil,
Suyeong-gu, Busan
Tue-Sun 11:30-19:30
Free

@bivaf_official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은 국내외 작품 공모를 통해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영상 작품을 상영한다. 또한 해마다 지역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제전을 기획하여 국내외 동시대 영상예술의 흐름과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고자 한다.

The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BIVAF) aims to support experimental video arts that deal with contemporary issues through international open calls. To explore contemporary video arts and expand the base of the field of the arts, BIVAF organizes thematic exhibition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urators each year.



«제15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전시 전경, 공간 힘, 2021.
Exhibition view of the 15th BIVAF,
Space Heem, 2021.
©BIVAF (Photo. LEE Jaekak).

공간 힘
Space Heem

공감각적 심상
Harmony of Sense

9.28 ~ 10.30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35, 1층
070-4647-3507
수-일 13:00-19:00
무료

1F, 135, Jwasuyeong-ro,
Suyeong-gu, Busan
+82-70-4647-3507
Wed-Sun 13:00-19:00
Free

www.objecthood.co.kr
[@object_hood](https://www.instagram.com/object_hood)

«공감각적 심상» 기획전은 네 명의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공간과 심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정의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이 전시회는 공감각적 감각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관객들에게 공간과 감정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과 감상의 시간을 나누고자 한다.

Harmony of Sense strives to provide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e spatial from four artists defining the experimentation of the evolution of space and painting their interpretations of an abstract artist's life. This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spatial sense, and opens doors to a conscious discernment and appreciation of emotion and comprehension.



1



2



3



4

- 1 육건우 YOON Gunwoo,
〈연결 No.20-030 Connect
No.20-030〉, 2020, cotton and
gesso on canvas, 80x100cm.
- 2 문지원 MOON Jiwon,
〈흔적 Trace〉, 2022, ink on canvas,
mixed media, 162.2x97cm.
- 3 이채영 LEE Chaeyoung,
〈행동하는 시간 시리즈
Time of Action Series〉, 2021,
ebonized wood, variable installation.
- 4 스튜디오 차차 Studio Chacha,
〈오로라 테이블 Aurora Table〉, 2020,
glass, 85.5x69x40cm.

오브제후드
Objecthood

워킹하우스뉴욕 신세계 센터 팝업

Walking House New York

Shinsegae Centum Pop-up Show

9.1 ~ 9.30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1, 2층
051-754-8932
화-토 10:00-18:00
무료

1F & 2F, Olive Center, 14-3,
Jwasuyeong-ro 125beon-gil,
Suyeong-gu, Busan
+82-51-754-8932
Tue-Sat 10:00-18:00
Free

walkinghousenewyork.com

워킹하우스뉴욕이 신세계갤러리와 협업하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진행되는 팝업 전시를 통해 다양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레미 토마스, 엘리타 안드레, 윌리엄 빌 올렉사, 도널드 미첼, 모나 쿤, 조지 와이드너, 티모시 슈미츠, 바바라 사이먼, 켄 그라임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Walking House New York collaborates with Shinsegae Gallery to showcase the works of various foreign artists through a pop-up exhibition at Shinsegae Department Store at Centum City, Busan. You will see the works of Jeremy THOMAS, Aelita ANDRE, William Bill OLEKSA, Donald MITCHELL, Mona KUHN, George WIDNER, Timothy SCHMITZ, Barbara SIMON, Ken GRIMES, and more.



«The Sounds of the Universe»
전시 전경, 워킹하우스뉴욕 부산, 2021.
Exhibition view of *the Sounds of the Universe*, Walking House New York Busan, 2021. ©WHNY Busan.

워킹하우스뉴욕
Walking House New York

방정아 개인전

BANG Jeong A Solo Exhibition

10.15 ~ 2023.1.14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1,2층
051-754-8932
화-토 10:00-18:00
무료

1F & 2F, Olive Center, 14-3,
Jwasuyeong-ro 125beon-gil,
Suyeong-gu, Busan
+82-51-754-8932
Tue-Sat 10:00-18:00
Free

walkinghousenewyork.com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이고 친숙한 동시대 풍경을 화폭에 담으면서도 한국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작업을 주로 해오며 부산시립미술관 회고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방정아 작가의 작품이 부산 첫 전시에 이어 서울 한남동 전시장까지 워킹하우스뉴욕과 함께 한다. (국내 아티스트 지원 첫 프로젝트)

BANG Jeong A has mainly worked on the critical and satirical subjects of modern Korean society, painting the familiar contemporary landscapes surrounding her while capturing the society's perceptions and problems within the narrative of the paintings. Her works, which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retrospective exhibition at Busan Museum of Art, will be exhibited and expanded at Walking House New York in Busan and Seoul. (1st Korean artist support project)

* 전시기간 변동 가능. Exhibition period is subject to change.



방정아 BANG Jeong A,
〈그녀가 손을 든 순간 The Moment
When She Raised Her Hand〉, 2017,
acrylic on canvas, 140x690cm.

워킹하우스뉴욕

Walking House New York

9.1 ~ 10.1

부산 수영구 망미변영로
63번길 16
051-645-4115
수-토 13:00-19:00
무료

16, Mangmibeonyeong-ro
63beon-gil,
Suyeong-gu, Busan
+82-51-645-4115
Wed-Sat 13:00-19:00
Free

@beonwhobookshop

심점환 작가의 «메모리 박스-과거의 동화»는 성인이 되고서도 숙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다시 엿본다. 과거 어느 시점 우리를 스쳐간 동화의 결말은 대부분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동화는 결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우울하고 어둡다.

SHIM Jeomwhan's *Memory Box - Fairy Tales of the Past* recalls memories and peeps back into humanity's "existential anxiety" that which cannot be escaped from, like fate even after adulthood. Most of the fairy tales that once were read in the past end up happily, but strangely, the artist's fairy tales are more depressing and darker as they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ending.



심점환 SHIM Jeomwhan,
«메모리박스 Memory box», 2022,
oil on canvas, 72.7x60.5cm.

전시공간 보다

BODA-Beonwho

망치질하는 어머니들
Hammering Mothers

10.4 ~ 10.29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63번길 16
051-645-4115
수-토 13:00-19:00
무료

16, Mangmibeonyeong-ro
63beon-gil,
Suyeong-gu, Busan
+82-51-645-4115
Wed-Sat 13:00-19:00
Free

@beonwhobookshop

김민정 작가는 영도의 역사부터 갯강이마을의 탄생과 변화 과정, 이제는 할머니가 된 갯강이 아지매의 노동과 삶과 그들의 관계를 그린다. 갯강이 아지매의 지난했던 하루하루가 쌓여 갯강이마을은 어느새 예술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 삶은 현재진행형이다.

KIM Minjung depicts the history of Yeongdo, the process of birth and change of Kangkkangee Village, and the work and life of Kangkange Ajimae (Ajimae is madam in the Busan dialect), and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dry dock and the work called Kangkangee (hammering to rip off the rusty surface of a ship). The past days of Kangkangee Ajimae accumulated to the present, and Kkangkangi Village quickly became an art village, yet the life of the Ajimae is still in progress.



김민정 KIM Minjung,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A Little Light in the Dark, 2022,
pen and watercolor on paper.

전시공간 보다
BODA-Beonwho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월-일 10:00-20:00
무료

20, Gurak-ro 123beon-gil,
Suyeong-gu, Busan
Mon-Sun 10:00-20:00
Free

@hyundai.motorstudio
motorstudio.hyundai.com/
busan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는 «Habitat One»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솔루션을 소개하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소통하기 위한 «Habitat One»전을 통해 두 개의 작가 그룹 BARE(바레)와 에코로지क्स튜디오의 신작들과 현대차의 탄소 중립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인다.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기획된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머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구현한 작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yundai Motorstudio Busan is a creative space for Hyundai Motor brand experience that offers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under the theme of “Design to live by”. Its recent exhibition, *Habitat One*, introduces shelter solutions for future generations and communicates Hyundai Motor’s sustainability vision, featuring new works in collaboration with two artist groups BARE and ecoLogicStudio, and an archival exhibition of Hyundai Motor’s carbon-neutral activities. The exhibition hope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imagine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works combined with artistic imagination with instagrammable designs and technology.



«Habitat One» 전시 포스터,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2022.
Exhibition poster of *Habitat One*,
Hyundai Motorstudio Busan, 2022.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Hyundai Motorstudio Busan

최형 崔兄

Big Bro. CHOI

11.3 ~ 12.3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85번가길 9
목-토 11:00-18:00
무료

9, Mangmibeonyeong-ro
85beonga-gil,
Suyeong-gu, Busan
Thu-Sat 11:00-18:00
Free

@centerofcontemporaryart

최승준 작가의 기억 속 최형은 우악스럽고 기분파여서 주변은 늘 눈치를 보고 조마해한다. 그래도 품위유지는 완벽한 게, 세련되고 걸음걸이도 바르며 옷에 구김 하나 없이 신발은 늘 깨끗하다. 그는 외로워 보였다. 사람에게 대한 애정을 동물을 통해 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이든 최형의 웃는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본 적 없는 어린 날의 최형의 웃는 얼굴은 기억한다.

Big brother CHOI that the artist CHOI Seung-Joon remembers was aggressive and temperamental so those around him were on always edge. However, he maintained his style, with his clothes pressed and wrinkle-free, shoes polished, and walking tall with his chin up. He seemed lonely. This was evident when he poured out all the affection that he could have given to people onto animals. Although unable to remember seeing big brother CHOI ever smiling as he grew older, the artist does recall the memories of him smiling as a child.



최승준 CHOI Seung-Joon,
〈최형 Big Bro. CHOI〉, year unknown,
photograph, 6x8.3cm.

현대미술회관
COCA Busan

갤러리마레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갤러리아트숲
갤러리조이
갤러리화인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데이트갤러리
맥화랑
뮤지엄 원
미들맨갤러리
아트소향
부산시립미술관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아세안문화원
어컴퍼니
오션갤러리
유나갤러리 해운대
BMW 포토 스페이스
조현화랑

Gallery Mare
Gallery Serene Space
Gallery Artsoop
Gallery Joy
Gallery Fine
GoEun Museum of Photography
FRANCE Art Space
Date Gallery
Gallery MAC
Museum 1
Middlemangallery
Art SoHyang
Busan Museum of Art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ASEAN Culture House
Accompany
Ocean Gallery
UNAW Gallery Haeundae
BMW Photo Space
Johyun Gallery



동부의 물결
Waves in
Eastern Busan

트랜스리퀴드프로젝트

The Trans Liquid Project

11.1 ~ 11.2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파라다이스 호텔 신관 B1
051-757-1114
화-일 10:30-18:00
무료

Paradise hotel #B1, 296,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82-51-757-1114
Tue-Sun 10:30-18:00
Free

www.gallerymare.com

에밀리 영이 선보이는 <<트랜스리퀴드프로젝트>>는 오일, 아크릴, 잉크, 석채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직접 만든 안료가 퍼지는 효과로 자연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성되는 예술적 환영은 비극적인 현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평범한 대상들에게 가치를 불어넣고 삶을 정화하며 옹호한다.

The Trans Liquid Project by Emily YOUNG depicts the dynamic nature in unique colors. It is not the representation of real nature, but rather a fantasy world created by the artist. Work begins by creating individual abstract patterns. Numerous geometric patterns combine to make new forms of nature, resulting in a single big idea. These fluid images represent the rhythms of life and the circulation of nature, and the artist intends to capture the raw energy of vitality through their free and spontaneous movements.



에밀리 영 Emily YOUNG,
<트랜스리퀴드프로젝트
The Trans Liquid Project>, 2022,
mixed media, 80x80cm.

갤러리마레
Gallery Mare

강다현 개인전

KANG Da-Hyeon Solo Exhibition

8.26 ~ 9.16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제니스스퀘어 A타워 607호
051-742-7422
화-토 10:00-18:00
무료

#607, Tower A, Zenith Square,
33, Marine city 2-ro,
Haeundae-gu, Busan
+82-51-742-7422
Tue-Sat 10:00-18:00
Free

@gallery_serenespace

강다현의 그로테스크 시리즈는 '추의 미'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회화나 영화가 아닌 가구에 멸종 동물을 통한 상징적 시그널을 사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일상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의 소재, 나무를 사용하여 유기적 곡선으로 매끈하게 마감함으로써 모순된 개념들의 극복과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KANG Da-Hyeon's Grotesque series began with an antipathy to existing aesthetic notions. Why should art only pursue beautiful things? There is also beauty in grotesque appearances and images! Grotesque situations are expressed, here, through beautiful images! This paradoxical expression is intended to present a new direction to beauty, the "beauty of ugliness".



강다현 KANG Da-Hyeon,
MAM, 2017, beech wood,
200x200x100cm.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Gallery Serene Space

정수옥 개인전

JEONG Soo-Ock Solo Exhibition

9.27 ~ 10.31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87,3F

051-731-0780

화-금 11:00-18:00

토-일 11:00-17:00

무료

3F, 187, Dalmaji-gil,
Haeundae-gu, Busan
+82-51-731-0780

Tue-Fri 11:00-18:00

Sat-Sun 11:00-17:00

Free

galleryartsoop.com

@gallery__artsoop

정수옥 개인전에는 일상과 사람, 동물과 곤충, 논과 밭 그리고 그 속의 소소한 감정들까지 자연 속 다양한 삶에 대한 작가의 세밀한 내적 관찰과 기록이 담겨 있다. 익숙함과 새로움, 계절의 길목에서 느끼는 자연의 생명력을 감성적 이면서도 감각적으로 관찰하고, 진리와 깨달음을 그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JEONG Soo-Ock's solo exhibition elaborates on the artist's detailed observations and records of life in nature, from everyday life to people, animals and insects, rice fields and paddies, and the emotional layers found within them. Familiarity and novelty, and the vitality of nature as it is felt at the crossroads of seasonal changes are depicted sensitively and sensuously, and truth and enlightenment are expressed through their own images.



정수옥 JEONG Soo-Ock,
〈강을 거슬러 오르다 Come Up a River〉,
2022, acrylic on canvas,
90,9x72,7cm.

갤러리아트숲

Gallery Artsoop

제73회 미술동인 '혁'展

The 73rd Exhibition of the Art Coterie "HYUK"

9.14 ~ 9.24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56, CK빌딩 1층
051-746-5030
화-일 11:00-19:00
무료

1F, CK Building, 56,
Dalmaji-gil 65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5030
Tue-Sun 11:00-19:00
Free

@gallery__joy

1963년 창립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미술동인 '혁'은 창조적 자유의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Founded in 1963 and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art coterie "HYUK", has led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by pursuing new changes without being complacent with creative free will.



제73회 미술동인 '혁'展 포스터
Exhibition poster of the 73rd
Exhibition of the Art Coterie "HYUK".

갤러리조이
Gallery Joy

경계(境界)에 서다
Stand on Boundary

9.30 ~ 10.3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56, CK빌딩 1층
051-746-5030
화-일 11:00-19:00
무료

1F, CK Building, 56,
Dalmaji-gil 65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5030
Tue-Sun 11:00-19:00
Free

@gallery__joy

이민한 작가는 <<경계에 서다>>전에서 주로 화선지에 수묵 담채를 사용해 바람결과 여백의미를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형식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적 절제미를 바탕으로 한국화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수묵 작품마다 포인트를 주듯 일부 색채를 가미한 점이 특징적이다.

In this exhibition *Stand on Boundary*, LEE Minhan expresses the beauty of breeze and margins impressively using ink-and-wash painting on Korean paper, and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 is seen based on the beauty of Korean moderation. It is characteristic that some colors are added as if giving points to each ink work.



이민한 LEE Minhan,
<관물 청심-오르다3 Listening to Things and Listening to Things>,
2019,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30x237cm.

하늘, 바람, 달과 꽃

Sky, Wind, Moon and Flowers

10.8 ~ 10.1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87,111&112호
051-741-5867
월-일 11:00-19:00
무료

#111 & 112, 287,
Haeundae haebyeon-ro,
Haeundae-gu, Busan
+82-51-741-5867
Mon-Sun 11:00-19:00
Free

박미경 개인전 «하늘, 바람, 달과 꽃»에서 대상 그대로의 형태는 작가의 상상이 대상과 어우러져 2차원의 규격화된 소우주 공간 가운데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 꽃은 또 다른 꽃으로 표현되며 형태가 없는 하늘과 바람도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다움은 대상을 소유하거나 정복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

In the standardized two-dimensional microcosm of space, presented in the exhibition *Sky, Wind, Moon and Flowers*, PARK Mi-Kyung's imagination blends with the object and is born into another form. A flower is expressed as another flower, and the amorphous sky and wind can be found in the subject of the painting. Beauty teaches us how to love an object without possessing it or conquering it.



박미경 PARK Mi-Kyung,
〈홍초 Red Canna〉, 2018,
acrylic, oil on canvas,
260x162.1cm.

갤러리화인
Gallery Fine

10.1 ~ 12.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051-746-0055
화-일 10:00-19:00
무료

16, Haeun-daero
452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0055
Tue-Sun 10:00-19:00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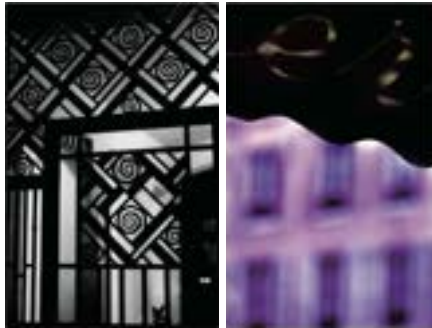
www.goeunmuseum.kr
@goeun_museum_of_photography

10.2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10.4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Museum Concert

고은사진미술관은 세계적인 사진가 랄프 깁슨의 전시를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71년 그가 사진가로서 처음 프랑스를 방문한 후 2022년까지 카메라에 담은 이미지들로 구성된 «Salon Littéraire» 시리즈이다. 프랑스와 관련하여 떠오른 영감들을 흑백 사진과 컬러사진을 교차한 디딤으로 엮어내었으며 작가의 감각적 구성이 돋보인다.

GoEun Museum of Photography holds an exhibition of masterpieces by Ralph GIBSON, a world-renowned photographer, for the second time since first displaying his works in 2014.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s *Salon Littéraire*, a series of photographs that he took from 1971, when he visited France for the first time as a photographer, to 2022. The series of diptych images, created by combining various black-and-white and color photographs based on his inspirations related to France through sensuous compositions.



랄프 깁슨 Ralph GIBSON,
Salon Littéraire, 1971~2022,
archival inkjet print, 43.18x55.88cm.

고은사진미술관

GoEun Museum of Photography

안·밖의 면

In·Out side

9.8 ~ 10.7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051-746-0055
화-일 10:00-19:00
무료

16, Haeun-daero
452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0055
Tue-Sun 10:00-19:00
Free

www.artspace-afbusan.kr
[@franceartspace_busan](https://www.instagram.com/franceartspace_busan)

서영의 <<안·밖의 면>>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개인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기억되는 공간의 형태를 시각화한 작업이다. 경계의 요소로 익숙하지만 낯선 형태를 드러내고, 유동적인 컬러 이미지가 감정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간의 확장성은 물론 관람객 모두에게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Seo Young's *In·Out side* is a visualization of the form of space that exists everywhere and is used and remembered differently by individuals. The elements of the boundary reveal familiar but unfamiliar forms, and fluid color images express emotions. Through this exhibition, we hope to find out not only the expandability of space, but also what it means to all visitors.



서영 Seo Young,
<일상 속 움직임 Everyday Inside
Motion>, 2022, mixed media
on shaped canvas, 60.6x60.6cm.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FRANCE Art Space

동해선

Donghaeseon

10.11 ~ 11.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051-746-0055

화-일 10:00-19:00

무료

16, Haeun-daero

452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0055

Tue-Sun 10:00-19:00

Free

www.artspace-afbusan.kr@franceartspace_busan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전인 2006년에 촬영한 사진과 2022년에 작업한 동해선을 함께 보여준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억으로서의 기록이다. 오늘의 풍경 속에서 사라진 동해선에 대한 기억을 묻고, 오늘의 작업은 또 다른 시간에 다시 기억을 환기할 것이다.

This exhibition shows photographs of Donghaeseon in 2006 before the Donghaeseon double track railway project and in 2022 together. These are the records as the memories that cannot be replaced by anyone.

This exhibition will throw a question of a memory of disappeared Donghaeseon today and the current artwork will evoke a memory in the future.



정금희 JUNG GeumHee,
<동해선 Donghaeseon>, 2022,
pigment print, 150x100cm.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FRANCE Art Space

김근태 전

KIM Keuntai

9.15 ~ 10.3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8번길5, 2F
051-758-9845
월-금 10:00-18:30
토 10:30-17:00
무료

2F, 5, Haeundaehaebyeon-ro
298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58-9845
Mon-Fri 10:00-18:30
Sat 10:30-17:00
Free

www.dategallery.kr
[@dategallery](https://www.instagram.com/dategallery)

데이트갤러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돌가루로 캔버스에 독자적 세계를 펼친 김근태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자연의 본질에 대한 작가의 탐구에서
사유에 빠져들게 하는 그의 작업은 비어 있지만 공허하지
않은 상태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의 결과물임을
느낄 수 있다.

Date Gallery will hold a solo exhibition of KIM Keuntai,
who painted his own world on canvas with rock dust from
September 15th to October 30th, 2022. In the artist's
quest for the essence of nature, his artwork, which causes
an immersion in thoughts, is the result of his practice to
reach the source of emptiness but without being in a
hollow state.



김근태 KIM Keuntai,
Discussion 2018-144, 2018,
mixed media, 34x62cm.
©KIM Keuntai.

데이트갤러리
Date Gallery

이두원 개인전

LEE Doowon Solo Exhibition

10.8 ~ 10.3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나길 162, 2층
051-722-2201
화-일 10:30-18:30
무료

2F, 162, Dalmaji-gil
117beonna-gil,
Haeundae-gu, Busan
+82-51-722-2201
Tue-Sun 10:30-18:30
Free

@gallerymac

이두원 작가는 전 세계를 돌며 현지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소재로 작업한다. 파키스탄, 네팔, 인도 등지에서 울, 햄프, 네틸, 대나무 천 등 살아 숨 쉬는 듯한 천연 재료를 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 자연과 동물, 인간은 하나라는 우주관을 갖고 작업하는 작가이다.

LEE Doowon's artworks show his emotions, experiences, and inspiration from nature in the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that he has traveled. He constantly studies new materials in diverse countries including Pakistan, Nepal and India, searching for raw materials with a sense of liveliness, and using local dyes and fabrics made of wool, hemp, nettles, and bamboo. He continues his work with a belief that nature, animal and human are one.



이두원 LEE Doowon,
〈야간버드 in 화원도 Night Bird
in Flower-garden Painting〉, 2022,
mixed media on vintage cotton,
105x145cm.

맥화랑
Gallery MAC

치유의 기술

Technique of Healing

3.26 ~ 2023.5.7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051-731-3302
월-금 10:00-19:00
토-일 및 공휴일 10:00-20:00
13,000원~

· 연령대별 금액 상이
(2022부산비엔날레 기간 동안
비엔날레 티켓 제시 시, 최대 33% 할인)

20, Centum seo-ro,
Haeundae-gu, Busan
+82-51-731-3302
Mon-Fri 10:00-19:00
Sat-Sun and Public Holidays
10:00-20:00
13,000 KRW~

· The amount is different by age group.
(Up to 33% off for biennial ticket
holders during the 2022 Busan
Biennale.)

@museum1_official

«치유의 기술»은 21명의 현대미술가들이 예술적 기술을 통해 창조한 결과물과 치유에 대하여 직접 기술한 텍스트를 함께 제시한다. 관객은 예술가의 철학과 그것에서 기인한 결과물을 동시에 목격하며 치유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Technique of Healing shows the results created by 21 contemporary artists with artistic skills and the text they wrote about healing. The audience is motivated to rethink the nature of healing by looking at the artist's philosophy and the creation from it.



김용민 KIM Yongmin,
〈빛의 선율 *Melody of Light*〉,
single channel video, 2022,
3 mins 2 secs.

뮤지엄 원
Museum 1

눈금 숫자

Gradation Number

9.1 ~ 10.16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051-731-3302

월-금 10:00-19:00

토-일 및 공휴일 10:00-20:00

«치유의 기술» 관람 시, 관람 가능

20, Centum seo-ro,
Haeundae-gu, Busan
+82-51-731-3302

Mon-Fri 10:00-19:00

Sat-Sun and Public Holidays

10:00-20:00

Free admission when viewing
Technique of Healing

@museum1_official

이성복 개인전 «눈금 숫자» 시리즈는 새로운 숫자 기호 체계를 구축하는 창작 실험이다. 이는 인간의 표상 체계를 이루는 기호 체계의 상대 좌표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호 체계를 디자인한다. 이를 통해 연속적이고 과정적이면서 계층적인 지각이 용이한 기호작용의 조작을 실험하며, 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표상의 근본적인 재접근 가능성을 탐색한다.

LEE Sungbok's solo exhibition the *Gradation Number* series is an experiment to build a new numerical symbol system. It attempts to design a system that conforms to the relative coordinate characteristics of the sign system constituting from the human representation system and exploring the promise of the fundamental re-accession of symbolic-based representation schemes.



이성복 LEE Sungbok,
GN 22-09, 2022,
acrylic on canvas, 130x162cm.

뮤지엄 원

Museum 1

미묘해씨

My Name is Mimyohae

8.25 ~ 9.20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14번길 54
051-917-0589
월-일 9:00-22:00
무료

54, Jwadong-ro 14beon-gil,
Haeundae-gu, Busan
+82-51-917-0589
Mon-Sun 9:00-22:00
Free

@middleman_gallery

이소을 작가의 <<미묘해씨>>는 초록색 봇짐을 지고 여행을 떠나는 고양이 이로와 동물들을 지켜주는 숲 속의 산신령 미묘해씨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들려준다. 누군가에게는 관심 받지 못한 혹은 금세 잊혀질 동물들을 그림으로 담아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결말을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다.

My Name is Mimyohae presented by LEE So-Eul tells the story of Iro, a cat who travels with a green sack, and Mimyohae, a mountain spirit in the forest who protects animals. The artist creates an ending in which they live a happy life by painting animals that no one cares about or that will soon be forgotten. Their story is our story.



미들맨갤러리 전경
View of the Middlemangallery.

미들맨갤러리
Middlemangallery

픽처레스크

Picturesque

8.23 ~ 10.1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B1
051-747-0715

화-토 11:00-18:00

무료

B1, 55,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82-51-747-0715

Tue-Sat 11:00-18:00

Free

www.artsohyang.com

미의 기준이 시대와 사회마다 다른 만큼 서양 미술사에서 픽처레스크 풍경화 역시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픽처레스크»에서는 전통적 방식과 관점에서 벗어나 김민우, 김옥정, 윤병운, 이주희, 태우 5명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2022년을 살아가는 작가들이 생각하는 ‘픽처레스크’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탐험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As the standard of beauty is different from era to society, picturesque landscape painting has also undergone various changes in the history of western art. Moving away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perspectives, *Picturesque* explores “picturesque” landscapes from various angles, by 5 artists KIM Woo, KIM Okjung, YOON Byungwoon, LEE Juhee, and Taewoo who live in 2022.



윤병운 YOON Byungwoon,
Crossing Into, 2022,
oil on canvas, 53x72.7cm.

아트소향
Art SoHyang

이우환과 그 친구들 IV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

Lee Ufan and His Friends IV

«Takashi Murakami: MurakamiZombie»

9.22 ~ 2023.3.12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화-일 10:00-18:00

일반 10,000원

58, APEC-ro,

Haeundae-gu, Busan

+82-51-744-2602

Tue-Sun 10:00-18:00

General 10,000 KRW

art.busan.go.kr

@busanmuseumofart

‘이우환과 그 친구들’ 네 번째 시리즈로 무라카미 다카시의 개인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공개된 적 없었던 초기작을 포함, 16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형 회고전이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The fourth in the series “Lee Ufan and His Friends” is the large-scale retrospective exhibition of the Japanese neo-pop artist, Takashi Murakami. Visitors are invited to engage in a meaningful look back on the artist's work,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his artistic oeuvre following the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이우환과 그 친구들 IV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
부산시립미술관, 2022.

Lee Ufan and His Friends IV

Takashi Murakami: MurakamiZombie,
Busan Museum of Art, 2022.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On my way to the Museum

4. 22 ~ 10.16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화-일 10:00-18:00
무료

58, APEC-ro,
Haeundae-gu, Busan
+82-51-744-2602
Tue-Sun 10:00-18:00
Free

art.busan.go.kr
@busanmuseumofart

동시대 미술관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가(free time)'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로, 작품 감상을 통해 예술을 즐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진정한 여가를 탐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진정한 여가'를 찾아가는 안내서와 같은 전시이다.

On my way to the Museum is an exhibition on the theme of "free time"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contemporary art museum is changing into a social space for people to engage in diverse experiences.



옵티컬레이스, <천태만상 인생순삭>, 2022, 레이저 커팅 시트, 449x1943cm(벽면)x2, 공간 설치. 부산시립미술관 지원.
Optical Race, 2L2Q, 2022, vinyl decal, walls:449x1943cm (2), BMA Commission.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BMA 부산미술 소장품 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BMA Collection from Historically Created Relations:
Everything Affects Each Other

7.15 ~ 10.16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화-일 10:00-18:00
무료

58, APEC-ro,
Haeundae-gu, Busan
+82-51-744-2602
Tue-Sun 10:00-18:00
Free

art.busan.go.kr
[@busanmuseumofart](https://www.instagram.com/busanmuseumofart)

부산시립미술관이 지난 25년 동안 축적해온 부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수집·연구·전시 성과를 토대로, 부산미술을 세계 자본주의 전개 과정 안에 놓인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새롭게 꿰어보는 소장품 기획전이다. 우신출의 <영가대>(1929)부터 이창운의 <편도여행>(2018)에 이르기까지 약 90여 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50여 점의 소장품과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Everything Affects Each Other is a collection exhibition to experiment the possibility of historical perception and description through collections of the Museum by re-interconnecting Busan art in the history of the emergence and the growth of Busan as a city. First, we start by relating Busan art to history. Furthermore, our journey includes an attempt to grasp the specific history of Busan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within the globally universal capitalist development process.



이창운 LEE Changwoon,
<편도여행 One Way Trip>, 2018,
stainless steel, belt conveyor,
wire, plastic eggs, 955x750cm.
BMA Collection.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이우환공간 상설전

Permanent Exhibition of Space Lee Ufan

1.1 ~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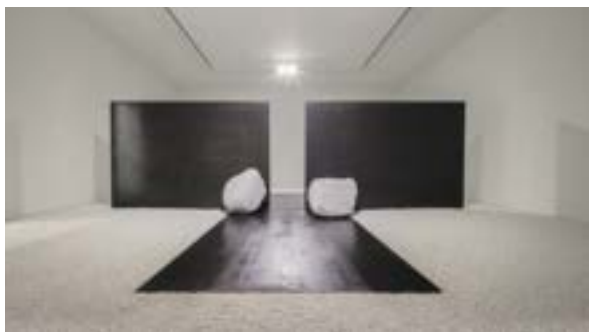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화-일 10:00-18:00
무료

58, APEC-ro,
Haeundae-gu, Busan
+82-51-744-2602
Tue-Sun 10:00-18:00
Free

art.busan.go.kr
@busanmuseumofart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공간에서는 작가 이우환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상설전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 1층에는 <관계항-좁은 문>, <물(物)과 언어> 등 이우환 작가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4점을, 2층에는 점과 선을 이용한 대표적 회화작품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 1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Space Lee Ufan displays the permanent exhibition of the artist Lee Ufan's masterpieces.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are installed representative sculptural works by Lee, including *Relatum - Narrow Gate and Relatum - Thing & Language*, while the second floor displays 15 works, including his quintessential paintings featuring points and lines, among them *From Line*, *From Point*, and *With Winds*.



이우환 Lee Ufan, <관계항-좁은문
Relatum-Narrow Gate>, 2015,
steel plates 220x320x3cm (4 pcs),
natural stones within 100x100x
100(h)cm (4 pcs), gallery room
908x1,060x415(h)cm.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플레이 스플래시

Play Splash

6.30 ~ 9.18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6층
051-745-1508
월-목 10:30-20:00
금-일 10:30-20:30
무료

6F, 35, Centum nam-daero,
Haeundae-gu, Busan
+82-51-745-1508
Mon-Thu 10:30-20:00
Fri-Sun 10:30-20:30
Free

www.shinsegae.com/culture/gallery/index.do

«플레이 스플래시»에서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는 11가지 게임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게임에 관한 우려와 통념을 깨고, 게임이 지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반추하고자 한다. 유저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식을 체험해 보고, 막대한 노력과 시간으로 구현되는 대서사를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지성과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다.

Play Splash introduces 11 types of games that offer unlimited imagination and creativity. It tries to break down conventional concerns and ideas about games and highlights the positive roles they can offer in our society. Users will be able to experience how ideas become realized while playing games and feel the infinite intelligence and challenging spirit of humans through the great rhetoric of enormous effort and time.



«플레이 스플래시» 전경, 2022.
Exhibition view of *Play Splash*,
2022. ©Shinsegae Gallery.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9.26 ~ 10.23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6층
051-745-1508
월-목 10:30-20:00
금-일 10:30-20:30
무료

6F, 35, Centumnam-daero,
Haeundae-gu, Busan
+82-51-745-1508
Mon-Thu 10:30-20:00
Fri-Sun 10:30-20:30
Free

www.shinsegae.com/culture/gallery/index.do

이재삼의 «Moon Project» Vol.1은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다. 단 한 점의 작품으로 선보인 개인전은 이슈를 일으키며 큰 관심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 후 그의 신작 20m 동백 작품을 부산에서 공개한다. 부산의 상징 동백을 만물을 담고 있는 블랙으로 그려내어 자연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LEE Jaesam primarily exhibited *Moon Project* Vol. 1 at his solo show in Seoul. The artist showed only one painting, and it not only raised questions on issues in, but also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art scene. A year later, LEE's new painting, *Dongbaek* at 20 meters in length, will be exhibited in Busan. The work is inspired by *Dongbaek* (camellia flowers), the symbolic flower of Busan, and LEE paints the flower in black to show the experience of nature being merged in art and becoming artwork.



이재삼 LEE Jaesam,
〈달빛녹취록 *Transcript of the Moonlit Vol.2*〉, 2021~2022,
charcoal, acrylic on canvas,
227x1,810cm.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먼 곳의 친구에게: 아프로-동남아시아 연대를 넘어

To a Faraway Friend:

Beyond Afro-Southeast Asian Affinities

7.2 ~ 10.2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162

051-775-2000

화-금 10:00-18:00

토-일 10:00-19:00

무료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82-51-775-2000

Tue-Fri 10:00-18:00

Sat-Sun 10:00-19:00

Free

www.ach.or.kr

캐슬린 딫지그(싱가포르)와 카를로스 키혼 주니어(필리핀) 그리고 임수영(한국) 큐레이터 3인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하게 재편된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도모했던 지역적 교류와 한국으로 까지 이어진 연대의 실천을 주목한다.

Jointly designed by three curators: Kathleen DITZIG from Singapore, Carlos QUIJON JR. from the Philippines, and LEAM Sooyoung from Korea, the exhibition explores how countrie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sought regional exchange after World War II, amid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reached out to Korea.



최대진 CHOI Daejin,
〈박싱데이: 신은 불의가 아닌
불평등을 창조했다 Boxing Day:
God Created Inequality, Not Injustice〉,
2022, charcoal and pastel on paper,
variable dimensions.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이야기하는 아세안: 종교, 예술, 삶

ASEAN Storyteller: Spiritual Beliefs, Arts & Life

상설 Permanent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162

051-775-2000

화-금 10:00-18:00

토-일 10:00-19:00

무료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82-51-775-2000

Tue-Fri 10: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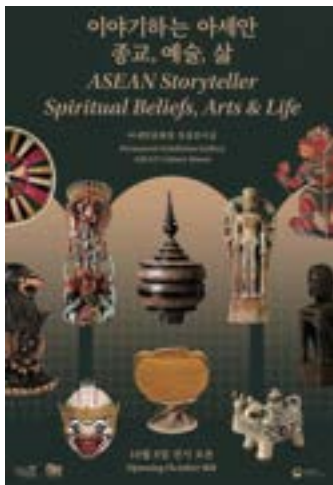
Sat-Sun 10:00-19:00

Free

www.ach.or.kr

아세안 국가들은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문화의 다양성 위에 외부 문명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 문화원의 상설 전시는 세 가지 관점 — 종교, 예술, 삶 — 을 제시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지닌 이야기 속으로 관람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The countries of ASEAN have traditions to accept diverse outside civilizations based on different ethnicities, languages, and religions. The ASEAN Culture House's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offers three perspectives — on religion, the arts, and life — in order to help guests better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dynamism of the ASEAN member countries.



아세안문화원 상설전 <이야기하는 아세안: 종교, 예술, 삶> 전시 포스터. Poster of ASEAN Culture House Permanent Exhibition ASEAN Storyteller: Spiritual Beliefs, Arts & Life.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흔적의 모양

Shape of Traces

8.11 ~ 10.1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3번길 38-15, 2층
수-토 12:00-18:30
무료

2F, 38-15, Jwadong-
sunhwan-ro 433beon-gil,
Haeundae-gu, Busan
Wed-Sat 12:00-18:30
Free

www.ac-company.co.kr
[@accompany_official](https://www.instagram.com/accompany_official)

조은필 개인전 «흔적의 모양»은 식물에서 싹이 돌아나거나, 우연히 활짝 핀 꽃이나 잎을 발견하는 등 일상에서 익숙하지만 우연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의 놀라움과 반가움을 이야기한다. 식물들의 선, 특히 곡선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히 매진한 도자 기법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CHO Eun-phil's solo exhibition *Shape of Traces* narrates the surprise of encountering familiar but accidental moments in everyday life, such as discovering buds from plants, or flowers in full bloom, and talking about joy. The artist presents new works that embody the lines of plants, especially through curves created in pottery for this exhibition.



«흔적의 모양» 전시 전경,
어컴퍼니, 2022. Exhibition view of
Shape of Traces, Accompany, 2022.

어컴퍼니
Accompany

시간과 공간

Time & Space

10.11 ~ 10.29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엘시티 더몰 포디움동) 3059호
051-746-6060
화-금 14:00-18:00
토 13:00-19:00
무료

#3059, 30, Dalmaji-gil,
Haeundae-gu, Busan
+82-51-746-6060
Tue-Fri 14:00-18:00
Sat 13:00-19:00
Free

www.oceangallery.kr
[@oceangallery1](https://www.instagram.com/oceangallery1)

«시간과 공간»전은 김영아, 예유근 2인전으로 준비된다. 기억은 시간으로, 떠다니는 꽃은 공간을 의미한다. 두 작가의 기억 속 떠다니는 꽃을 담아 특유의 진한 색감을 담은 회화를 만나 볼 수 있다.

The exhibition *Time and Space* is a two-person exhibition by KIM Younga and YE Yougun. Memories represent time, and floating flowers represent space. You can meet paintings with unique dark colors with floating flowers in the memories of the two artists.



오션갤러리 엘시티점 전경, 2022.
View of the Ocean Gallery LCT, 2022.

오션갤러리
Ocean Gallery

숲에서 숲으로

Forest to Forest

8.7 ~ 9.3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30,
(시그니엘 부산) 301
051-746-1834
월-일 10:00-18:00
무료

#301,30,Dalmaji-gil,
Haeundae-gu,Busan
+82-51-746-1834
Mon-Sun 10:00-18:00
Free

uninartworksgallery.com
[@unawgallery](https://www.instagram.com/unawgallery)

이번 장시울 개인전 «숲에서 숲으로»는 유나갤러리 해운대 개관전 이래 첫 기획전이다. 장시울 작가는 점과 선의 중첩을 기본 형식으로 삼아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존재의 형식을 보여준다. 중첩되고 무한히 표현된 선들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하나하나 탄생된 나무는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갤러리 공간 내에서 숲을 이뤄낸다.

This solo exhibition *Forest to Forest* by JANG Siwool is the first major exhibition at UNAW Gallery Haeundae location. It seeks to unearth the form of existence through the repetitive action of layering points and lines. Infinite, overlapping lines combine to display a tree, and such trees combine to create artworks, which in turn, and together, become a forest in the space of the gallery while still maintaining their own individual characteristics.



장시울 JANG Siwool,
The Tree...210108, 2021,
acrylic on canvas,
26x17,5cm.

유나갤러리 해운대

UNAW Gallery Haeundae

매그놀리아

Magnolia

9. 23 ~ 12. 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9, BMW MINI 빌딩 2층
 051-792-1630
 월-금 9:00-18:00
 토 9:00-15:00
 무료

2F, BMW MINI Building, 299,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82-51-792-1630
 Mon-Fri 9:00-18:00
 Sat 9:00-15:00
 Free

www.bmwphotospace.kr
[@bmw_photo_space](https://twitter.com/bmw_photo_space)

9. 23
 오픈링 리셉션
 Opening Reception

9. 24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정정호 작가의 사진전 <매그놀리아(Magnolia)>가 Leica Camera의 지원으로 BMW Photo Space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와 공식 딜러인 라이카 스토어 해운대가 함께 주최한다. 작가는 작업실 주변에서 떨어진 목련을 주워 오랜 시간을 들여다보며 꽃의 조형성을 탐구했다. 꽃이 시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이를 우리 삶에 대한 은유로 해석했다.

JUNG JungHo presents *Magnolia* in the BMW Photo Space with the support of Leica Camera. This exhibition is co-hosted by Leica Camera Korea and Leica Store Haeundae. The artist looked at magnolia flowers that had fallen near his studio and watched them for a long time exploring their plasticity. JUNG recorded the flowers' withering process using photography and interpreted it as a metaphor for human life.



정정호 JUNG JungHo,
L1004304, 2022, 2022,
 archival pigment print,
 133x200cm.

BMW 포토 스페이스
 BMW Photo Space

산
San

9.1 ~ 10.23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71
051-747-8853
화-일 10:30-18:30
무료

171, Dalmaji-gil 65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7-8853
Tue-Sun 10:30-18:30
Free

www.johyungallery.com

조현화랑(달맞이)에서 윤종숙 개인전 «산»을 마련했다. 1995년 한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후, 작가는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음의 풍경'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서사적 요소를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Johyun Gallery(Dalmaji) exhibits YOON Jongsuk solo exhibition *San*. The artist is a Korean-German painter who moved from Korea and relocated to Germany in 1995. Her paintings are based on landscapes, in particular what she recalls from her memory, expressed in abstract form via narrative elements which she describes as mindscapes.



윤종숙 YOON Jongsuk,
〈금강산 Kumgangsán〉, 2022,
oil on canvas, 290x780cm.
©YOON Jongsuk.

조현화랑(달맞이)
Johyun Gallery(Dalmaji)

어제는 이른 아침이었다.

It was early morning yesterday.

9.1 ~ 10.23

부산 해운대해변로298번길 5

051-746-8660

화-일 10:30-18:30

무료

5, Haeundaehaebyeon-ro

298beon-gil,

Haeundae-gu, Busan

+82-51-746-8660

Tue-Sun 10:30-18:30

Free

www.johyungallery.com

조현화랑(해운대)에서는 보스코 소디의 개인전 <어제는 이른 아침이었다.>를 마련했다. 작가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으로 질감과 색채 표현이 풍부한 대형 회화작업을 선보인다.

Johyun Gallery(Haeundae) presents Bosco SODI's solo exhibition *It was early morning yesterday*. As one of Mexico's leading contemporary artists, Bosco SODI creates large scale painting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mixtures of raw pigment and sawdust, wood, clay, and stones to express dense textures and a variety of colors.



보스코 소디 Bosco SODI,
<무제 BS 3875 *Untitled BS 3875*>,
2022, mixed media on canvas,
186x186cm. ©Bosco SODI.

조현화랑(해운대)

Johyun Gallery(Haeundae)

찾아보기

Index

2022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16	부산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9.3 ~ 11.6
	17	부산항 제1부두 Pier 1 of Busan Port	9.3 ~ 11.6
	18	영도 Yeongdo	9.3 ~ 11.6
	19	초량 Choryang	9.3 ~ 11.6
서부의 물결 Waves in Western Busan			
선진호 Sunjin Ho	25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역사를 실어 나르는 그릇 Steel Ark Drifting Agora: The Vessel That Carries History	10.1 ~ 11.20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26	2022 예문교직원사진전 2022 Yemoon Exhibition of Photographs for School Personnel	9.2 ~ 9.24
	27	일상, 그리다 Painting of Daily Life	10.6 ~ 10.26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 Eulsukdo Cultural Center Gallery Eulsukdo	28	백주아 · 손유하 · 박지원 개인전 BAEK Jua · SOHN Yuha · PARK Jiwon Solo Exhibitions	10.7 ~ 10.30
홍티아트센터 Hongti Art Center	29	끝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End	4.13 ~ 11.25
홍티예술촌 Hongti Art Village	30	2022 홍티예술촌 전시공간 지원사업 2022 Hongti Art Village Exhibition Space Support Project	8.4 ~ 9.26

중부의 물결
Waves in Central Busan

예술공간 영주맨션 Art Space Youngju Mansion	32	2022 여성예술인을 위한 기술워크숍 연계전시 Exhibition Linked to Technology Workshops for Female Artists 2022	9.18 ~ 10.16
오픈스페이스 배 Openspace Bae	33	부산물 Busanmul	9.3 ~ 11.5
디오티미술관 DOT Museum	34	톡톡, 탁탁 TOKTOK, TAKTAK	9.1 ~ 10.1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PNU Art Center	35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40주년 기념전 외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40th Anniversary Exhibition & Other Exhibitions	9.16 ~ 10.20
예술지구_p Art District_p	36	바디 시리즈 Body Series	9.7 ~ 9.14
	37	ㅈㅈ Sorry	10.6 ~ 10.20
	38	박자현 개인전 PARK Jahyun Solo Exhibition	11.1 ~ 11.14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openARTs space MERGE?	39	2022 오픈아츠 국제 레지던스 한국-아이슬란드 교류 프로젝트 전 2022 openARTs International Residence Korea-Iceland Exchange Project Exhibition	8.26 ~ 9.11
	40	2022 부산국제openARTs프로젝트 2022 International openARTs Residence in Busan	10.8 ~ 10.22
(재)부산문화회관 전시실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Hall	41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Henri Matisse: Life and Joy	7.9 ~ 10.30
갤러리이배 Lee & Bae	42	예술의 품격 The Dignity of Art	9.1 ~ 10.23
국제갤러리 Kukje Gallery	43	의사 擬似 - 합법 Quasi-Legit	8.30 ~ 10.2

공간 힘 Space Heem	44	너무 총체적인 문제라서 혁명 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It's Such a Complete Mess that a Revolution Seems to Be the Only Answer	8.19 ~ 9.18
	45	밤이 없는 방 A Room without Night	9.30 ~ 10.23
	46	제16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The 16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11.4 ~ 11.20
오브제후드 Objecthood	47	공감각적 심상 Harmony of Sense	9.28 ~ 10.30
워킹하우스뉴욕 Walking House New York	48	워킹하우스뉴욕 신세계 센텀 팝업 Walking House New York Shinsegae Centum Pop-up Show	9.1 ~ 9.30
	49	방정아 개인전 BANG Jeong A Solo Exhibition	10.15 ~ 2023.1.14
전시공간 보다 BODA - Beonwho	50	메모리 박스 - 과거의 동화 Memory Box - Fairy Tales of the Past	9.1 ~ 10.1
	51	망치질하는 어머니들 Hammering Mothers	10.4 ~ 10.29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Hyundai Motorstudio Busan	52	Habitat One	7.7 ~ 2023.1.8
현대미술회관 COCA Busan	53	최형 崔兄 Big Bro. CHOI	11.3 ~ 12.3
동부의 물결 Waves in Eastern Busan			
갤러리마레 Gallery Mare	55	트랜스리퀴드 프로젝트 The Trans Liquid Project	11.1 ~ 11.20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Gallery Serene Space	56	강다현 개인전 KANG Da-Hyeon Solo Exhibition	8.26 ~ 9.16

갤러리아트숲 Gallery Artsoop	57 정수옥 개인전 JEONG Soo-Ock Solo Exhibition	9. 27 ~ 10. 31
갤러리조이 Gallery Joy	58 제73회 미술동인 '혁'展 The 73rd Exhibition of the Art Coterie "HYUK"	9. 14 ~ 9. 24
	59 경계(境界)에 서다 Stand on Boundary	9. 30 ~ 10. 30
갤러리화인 Gallery Fine	60 하늘, 바람, 달과 꽃 Sky, Wind, Moon and Flowers	10. 8 ~ 10. 16
고은사진미술관 GoEun Museum of Photography	61 Salon Littéraire	10. 1 ~ 12. 31
부산 프랑스문화원 ART SPACE FRANCE Art Space	62 안·밖의 면 In·Out side	9. 8 ~ 10. 7
	63 동해선 Donghaeseon	10. 11 ~ 11. 6
데이트갤러리 Date Gallery	64 김근태 전 KIM Keuntai	9. 15 ~ 10. 30
맥화랑 Gallery MAC	65 이두원 개인전 LEE Doowon Solo Exhibition	10. 8 ~ 10. 30
뮤지엄 원 Museum 1	66 치유의 기술 Technique of Healing	3. 26 ~ 2023. 5. 7
	67 눈금 숫자 Gradation Number	9. 1 ~ 10. 16
미들맨갤러리 Middlemangallery	68 미묘해씨 My Name is Mimyoahae	8. 25 ~ 9. 20
아트소향 Art SoHyang	69 픽처레스크 Picturesque	8. 23 ~ 10. 1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70 이우환과 그 친구들 IV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 Lee Ufan and His Friends IV «Takashi Murakami: Murakamizombie»	9. 22 ~ 2023. 3. 12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71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 On my way to the Museum	4. 22 ~ 10. 16
	72	BMA 부산미술 소장품 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BMA Collection from Historically Created Relations: Everything Affects Each Other	7. 15 ~ 10. 16
	73	이우환공간 상설전 Permanent Exhibition of Space Lee Ufan	1. 1 ~ 12. 31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74	플레이 스플래시 Play Splash	6. 30 ~ 9. 18
	75	Moon Project Vol. 2 - 夜生花 Moon Flower	9. 26 ~ 10. 23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76	먼 곳의 친구에게: 아프로-동남아시아 연대를 넘어 To a Faraway Friend: Beyond Afro-Southeast Asian Affinities	7. 2 ~ 10. 2
	77	이야기하는 아세안: 종교, 예술, 삶 ASEAN Storyteller: Spiritual Beliefs, Arts & Life	상설 Permanent
어컴퍼니 Accompany	78	흔적의 모양 Shape of Traces	8. 11 ~ 10. 1
오션갤러리 Ocean Gallery	79	시간과 공간 Time & Space	10. 11 ~ 10. 29
유나갤러리 해운대 UNAW Gallery Haeundae	80	숲에서 숲으로 Forest to Forest	8. 7 ~ 9. 30
BMW 포토 스페이스 BMW Photo Space	81	매그놀리아 Magnolia	9. 23 ~ 12. 31
조현화랑(달맞이) Johyun Gallery(Dalmagi)	82	산 San	9. 1 ~ 10. 23
조현화랑(해운대) Johyun Gallery(Haeundae)	83	어제는 이른 아침이었다. It was early morning yesterday.	9. 1 ~ 10. 23

발행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발행인 박형준
편집인 김성연
진행 정선주(학술사업팀)
편집 최윤형·이민정·최성우(시선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백지은(로그)
인쇄 까치원색

발행일 2022년 8월
문의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4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주경기장 38호
대표전화 051-503-6111
팩스 051-503-6584
www.busanbiennale.org

Published by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Publisher PARK Heong-Joon
Editor KIM Seong-Youn
Directed by JUNG Sun-Joo
(Academic · Public Program Team)
Edited by CHOI Yoon-Hyoung ·
LEE Min-Jung · CHOI Sung-Woo
(Seasun Communications)
Design BECK Jean(LOG)
Printing Kkachi Color Corp.

Published on August, 2022
Contact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8, Busan Asiad Main Stadium 344,
World cup-daero, Yeonje-gu,
Busan, 47500, Republic of Korea
Tel. +82-51-503-6111
Fax. +82-51-503-6584
www.busanbiennale.org

본 책자는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동의 없이 전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표기가
없는 모든 이미지는 작가 및 소유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This booklet cannot be pre-examin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All images/photographs without
an additional mark in this book are
publish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rtists and each copyright holder.

©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ISBN 979-11-979852-9-4